News p/3

르포 ◆ 백령도 안보 위협

메트로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제3181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2015봄, 사랑에 빠진 연예계

나, 전관인데 개업합니다

판·검사 출신들 속보이는 변호사 개업광고 무방비 p/23

학교·기수·근무지 등 공개… "전관예우 출발점"

김효주 LPGA 첫 우승… 롯데도 축배 p/21

'싱가포르의 기적' 리콴유 전 총리 타계 p/4

Especulación y productores, responsables del huevo caro

Números. En tan sólo 15 días, el kilo del básico aumentó 24% en promedio, aunque hay alzas de hasta 40%

El precio del kilo de huevo reportó una escalada de entre ocho y 11 pesos en las últimas dos semanas, lo cual es producto de especulaciones sobre un supuesto cierre de la frontera a la importación del básico y al acaparamiento de los distribuidores.

Hacia finales de febrero, las amas de casa pagaban 32.25 pesos por un kilo de blanquillos; hoy desembolsan 40 pesos en promedio, lo cual representa un alza de 24% en tan sólo dos

Mientras la Procuraduría Federal del Consumidor (Profeco) señaló que, en algunas zonas del país, el básico se vende hasta en 46 pesos.

La Unión Nacional de Avicultores (UNA) explicó que dicho encarecimiento obedece a la especulación de los distribuidores, quienes subieron el precio hasta cinco pesos ante la declaración del secretario de Economía, Ildefonso Guajardo, sobre el cierre de la frontera del país a la importación de huevo fértil, proveniente de EU, por un brote de gripe aviar.

En lo que no repararon, señaló la UNA, es que el funcionario federal se refirió a "huevo fértil", el cual se utiliza para generar nuevas crías, "pero de pavos", que son la especie afectada.

La asociación aseguró que no hay elementos que justifiquen el alza de los blanquillos debido a que el abasto nacional es estable, con dos millones 571 mil toneladas producidas durante 2014, y una importación de 26 mil toneladas, que apenas rebasa 1% del total.

La titular de la Profeco, Lorena Martínez, señaló que todo apunta a que los productores elevaron el precio del básico, por lo que la dependencia a su cargo entregará esta semana un informe que permitirá sancionar a los responsables.

Frente a tales hechos, el secretario de Economía, Ildefonso Guajardo, afirmó que la autoridad está a la espera del análisis de la Profeco y senten-

Datos clave

'황금알'로 둔갑한 멕시코 달걀

metro Mexico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타코·케사디아·부리토 등을 멕시코 내에서 더 이상 마음 놓고 즐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달걀 가격 급등으로 달걀이 필요한 음식들의 가격도 동반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메트로 멕시코에 따르면 멕시코 1인당 달걀 소비량은 전 세계 1위다. 멕시코 국민들의 연간 1인당 달걀 소비량은 321개로 미국의 약 1.3배, 인도의 약 8배나 많다. 문제는 올해 2월 말에 전국 평균 1kg 당 약 32페소(약 2400원)였던 달걀 가격이 불과 보름 만에 24%가 급등해 40페소(약 3000원)를 훌쩍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러한 갑작스런 달걀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전국 양계업 조합(UNA)은 '유통업자'들의 투기를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꼽는다. 지난달 말 조류독감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산 칠면조 수정란에 수입 제한 조치가 나오자 대체재인 달걀에 대한 사재기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UNA는 "달걀 공급량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의 투기'만이 가격 급등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김서이기자

"MB 증인채택, 국조 못해도 수용불가"

여야 협상 또 불발… 친이계 권성동 초강경 발언

"우리는 국정조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거 없는 증인신청, 망신주기식 증인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국조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이같이 못박았다. 자원외교에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가 소명이 안됐다는 게 이유다. 권 의원은 "명맥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국조는 명백하게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그간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가 요구했던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등 5명의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국조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노무현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물타기"라며 "국조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여야 간사 간 증인채택 협상은 40분간의 설전 끝에 결국 소득 없이 끝났다. 두 사람은 재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권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대표적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입성 후에는 세종시 관련 수정안을 두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권성동 여당 간사(왼쪽)와 홍영표 야당 간사가 23일 국회에서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논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개혁에 통 크게 협조해야"

박승, 문재인에 쓴소리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제1야당이 경제원로에게서 쓴 소리를 들었다. 향후 태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예로 들었다.

박 전 총재는 "지금의 국민과 그 후손이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를 시정하는 일은 인기가 없는 일인데도 현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개혁에 소극적인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극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문 대표는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제출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먼저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정부 제출안을 요구하며 여당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 대표는 '유능한 경제정당론' 행보의 일환으로 석학들로부터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이날 박 전 총재를 초대했다. 박 전 총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보육이나 급식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정신에 입각해서도 무상으로 하는 게 옳다"면서도 "고소득층의 보육비와 급식비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되 세금으로 내는 게 기본 이치에 맞는다. 이런 점에서 증세 복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개별적인 복지, 예를 들어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은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옳다. 소외된 사람을 더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선별 복지를 더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박 전 총재는 지난 달 새누리당 당내 모임에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초이노믹스'를 향해 '경제 후진화'라며 직격탄을 날리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정경기자 jkljkl@

"포탄 떨어질까 두려워요"

르포 백령도 안보위협

"북한군의 포격훈련 소음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지난 16일 밤 9시 30분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늦은 밤 시간에도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이 수놓아진 서울과 달리 이곳은 군데군데 떨어진 가로등 불빛으로만 의지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자동차도 인적도 거의 없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인 백령도에는 해병대 병사를 제외하고 5394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17%라서 대표적인 고령 지역으로 분류된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2곳·중학교 1곳·고등학교 1곳·유치원 3곳 밖에 없으며, 의료기관도 보건소와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2곳이 전부인 상황이다. 인천항으로 가는 배편도 하루 두번이 전부다.

열악한 생활환경도 문제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게 이 곳 주민들에겐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북한 장산곶으로부터 불과 17㎞ 떨어진 위치인데다 대청도와 연평도 등 나머지 서해 4도 지역과 함께 북한의 주요 공격 대상이 돼왔기 때문이다.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발생한 제1연평해전부터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졌다.

게다가 북한의 포격훈련 등 전술훈련이 있는 날이면 백령도까지 관련 소음이 들려 불안해진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해 지역을 맡은 서남전선부대의 선 타격·상륙 연습을 시찰했다.

어민인 박진형(56)씨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백령도 주변에서 일어났는데 아이들을 어른의 보호 없이 밤시간에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농민 김모(44)씨는 "어렸을 적부터 어른들에게 '밤에 외출하면 북한군이 잡아간다'는 말을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밖에 나가면 불안하다"며 "백령도 주민들은 북한의 위협에 마음 졸이며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북한 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했을 경우 살포한 지역을 타격하겠다고 발언한데 대해 백령도 주민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타격의 대상이 북한과 제일 가까운 백령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 정모(55)씨는 "대북 전단이 살포돼 백령도에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라며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관계자들이 북한의 안보위협 문제를 해결하고 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인천 옹진군 백령도 두문진 포구. 외형상 평화롭기만 하지만 남북긴장관계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진=유선준기자

무상급식 논란 홍준표, 이번엔 '골프 논란' 지난 18일 경남도청 집무실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예방을 기다리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모습. 홍 지사는 재정난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지만 현재 출장 중인 미국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에는 '밀리터리 셰어'가 있다

기자 수첩

정 윤 아 <정치부 기자>

오크통에 보관된 위스키 원액은 매년 약 2%정도가 자연 증발한다. 천사가 가져간다고 해 '엔젤스 셰어'라고 부른다. 한국에는 '밀리터리 셰어'가 있다. 군수품 구입 시 혈세가 꼬박꼬박 사라진다. 엔젤스 셰어처럼 자연법칙은 아니지만 '한국의 법칙' 수준은 된다. 건국 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1951년 6·25 전쟁 중에 벌어진 국민방위군 사건은 창군 직후 군 비리 수준을 말해 준다. 상하를 가리지 않는 군수품 착복 비리로 인해 1·4후퇴 당시 강제징집된 50여만명 중 5만~8만여명(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발표)이 굶어죽거나 얼어죽었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총살당하기는 했지만 국방부의 조직적인 은폐로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자신의 사위를 사령관으로 앉힌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은 끝내 처벌을 피했다.

3, 4, 5공화국으로 이어진 군사독재 시기 군의 비리는 수면위로 떠오르지도 못했다. 민주화 이후에야 곪아 있던 군의 실상이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라고 의심되지만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율곡비리, 백두비리, 이원형비리 등 대형 비리가 줄을 이었다. 2015년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조사 중인 비리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다. 비리 수법도 그대로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 군 책임자들이 '밀리터리 셰어'를 꿀꺽하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직 해군참모총장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 군의 주력은 육군이다. 심하게 말하면 육군이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될 정도다. '비리가 해군에서만 있었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 창군 이후 저질러 온 '전과'에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수긍이 가는 말이다. 합수단이 만연해 있는 국민적 의심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산하기관 직원이 도의원 보좌관 역할

감사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에 권고·주의 조치

경기도가 산하 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사실상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보좌관 업무를 맡겨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권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도의회 의원들의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되자 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했다. 센터 직원들은 도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도의원 보좌관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셈이다.

의정연구센터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동안 수행한 총 602건의 업무실적 중 도의회나 상임위 차원에서 요청한 업무는 단 11건(1.8%)에 불과했다. 나머지 591건(98.2%)은 도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 질의, 정책조사, 조례안 입법지원 등 자료 작성과 제출에 관한 업무였다.

감사원은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실상 지방의원 개인의 유급 보좌 인력을 운영, 지원해왔다"며 "남 지사와 임해규 연구원장에게 관련 예산 삭감과 의정연구센터 폐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출자회사인 킨텍스(KINTEX)가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과 함께 복리후생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한 행태를 방치한 사실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킨텍스는 2013년 말 기준으로 누적결손금이 3330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인건비 인상률을 노사 간 임금협약 내용보다 작게는 0.1%에서 많게는 16.8% 더 높게 책정했다. 또한 법인 골프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朴 대통령 '리콴유 서거' 애도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서거에 즈음해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고인은 수차례의 방한으로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을 쌓았으며 한·싱가포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귀중한 지혜를 주신 우리 국민의 친구였다"며 "애통함을 금치 못하며 리셴룽 총리를 비롯한 유가족과 싱가포르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국민에게는 추앙받는 지도자이시며, 세계 지도자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신 리콴유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고인은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서 31년간 싱가포르를 이끌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싱가포르를 세계속의 금융, 물류 허브이자 선진국으로 도약시켰다"며 "싱가포르를 세계속의 일류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신해오신 고인의 업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급 지도자의 서거에 대해 성명을 냈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리 전 총리와 대를 이어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송병형기자

이주민 인권강화·쉼터운영 서울시, 민간사업자 공모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41만명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과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외국인주민 인권강화와 쉼터 운영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외국인 주민 쉼터 운영과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뉜다. 시는 실직,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 중인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 3곳을 선정해 개·보수와 식재료, 침구류 교체 비용으로 1곳당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인종 차별적인 언어, 행동, 일상생활의 고충,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면 공모할 수 있다. 이 역시 시가 비영리 민간단체 3곳을 선정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4층에서 지원희망단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는 공모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응모신청서 작성방법 소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Seoul, Foreign Residents Protection of Human Rights Private Licensee Contest

Seoul will host a Foreign Residenc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Shelter Management contest until the 1st of next month to ensure and protect 410,000 foreign residents living in Seoul. The contest has two fields, Foreign Residents Shelter Management and Foreign Laborers Program Management. Seoul will select 3 Foreign Residents Shelters and support maximum of 35 million won for remodeling, repairing, food reserves and replacing sleeping gear for foreign residents who are in need due to unemployment, change of jobs and family matters. Foreign Laborers Program Management contest is for those who have ideas on solving problems regarding racism, language difficulty, every day life hardships and so on. Three non profit private organizations will be selected as well and the same amount of funding will be supported. Any organizations hoping to apply can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present condition report, business plan and budget management program. Then visit the officer of Foreigner and Multi-Culture and turn in the papers from 30th of this month until the 1st of next month. Prior to this, Seoul will host a Business briefing session on the 25th at Seoul Global center(4th floor)) for organizations hoping to apply. The briefing session will include the contents of the contest, support scale, application fill out method and Q&A time.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인종차별 철폐 촉구 집회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캠퍼스 가상 투어 아시나요?

美 예일대 등 VR 서비스 확산

입학 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미리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를 투어해 볼 수 있다면….

영화 속에나 있을 법한 이러한 체험이 실제로 가능하게 됐다.

22일(현지시간) 호주의 ABC를 포함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가상 대학캠퍼스 투어 개발 업체인 유비짓 (YouVisit)이 예일대를 비롯한 1000곳 이상의 대학 캠퍼스에 가상 투어 서비스(사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체험자들에게 오컬러스 리프트(Oculus Rift)가 제작한 VR(가상현실) 헤드셋을 통해 캠퍼스의 모든 곳을 샅샅이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예를들어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VR헤드셋만 쓰면 예일대의 기숙사·식당 등 교내 시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강의실로 들어가 수업 듣는 가상 체험도 가능하다.

특히 이 서비스는 기존 VR 게임 등에서 문제가 됐던 울렁거림 등의 역효과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유비짓의 설립자인 아비 만델바움(Abi Mandelbaum)은 "캠퍼스 직접 방문을 위해 학생들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돈을 크게 절약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성공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또 미국 주요 언론에 의하면 프랑스의 오덴시아 경영학교 매니저인 앤드류 테일러(Andrew Taylor)는 "학교 내부 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위치한 도시의 중심가까지도 3D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가상 캠퍼스 체험 콘텐츠 제작에 태동이 일고 있는 추세다. 경운대 산학협력단과 대구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전문업체인 네오썬이 최근 가상 캠퍼스 투어를 위한 VR 콘텐츠 제작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21세기에도 기우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2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수호성인상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많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고 있다. 당국은 브라질 남동부 지역이 80년래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오열하는 싱가포르 국민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싱가포르 종합병원에 마련된 추모소로 달려와 오열하고 있다. /AP·AFP·신화통신

"나는 마키아벨리가 옳다 믿었다"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 전 총리 타계… 29일 장례식

"진정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택과 의료, 일자리와 학교다."

'골수 마키아벨리즘 신봉자'로 불렸던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전 총리가 23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AP·AFP·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리 전 총리가 오늘 오전 3시18분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7일 동안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29일 장례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리 전 총리의 타계에 싱가포르 전역은 슬픔에 빠졌다.

관공서 등 공공 건물마다 그를 애도하는 조기가 내걸렸다. TV 방송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리 전 총리의 일대기를 조망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그의 타계를 애도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웹사이트 기본 색을 회색조로 바꾸는 등 애도를 표했다.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 /AFP 연합뉴스

리셴룽 총리는 TV에 나와 울먹이며 "우리는 앞으로 그와 같은 인물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며 "많은 싱가포르인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도 리콴유는 싱가포르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반기문·오바마 등 애도성명 발표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일제히 애도성명을 발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싱가포르의 국부인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그는 역사의 진정한 거인, 현대 싱가포르의 아버지, 아시아의 위대한 전략가의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리 선생의 서거는 싱가포르 인민에게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큰 손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치관 짙은 어록도 주목

리 전 총리의 어록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리 전 총리는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16세기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신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세계 최장수 총리로 재직하며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권위적 통치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관 짙은 발언으로 종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리 전 총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될지 사이에서 나는 늘 마키아벨리가 옳다고 믿었다"며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의미없는 존재"라고 단언했다.

리 전 총리는 정적에 대해서도 "내 가방 안에는 매우 날카로운 손도끼가 하나 있으며 만약 말썽꾼과 겨루게 된다면 나는 손도끼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금융지주 주총시즌… 사외이사 지형도 바뀌나?

신한·KB·우리 등 잇달아 교체

금융지주사들이 이번 주 정기 주주총회를 잇달아 연다.

주요안건으로는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임건이 올랐다. 이에 따라 이사진의 교체폭과 구성, 지배구조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25일 금융지주사 가운데 가장 먼저 주총 문을 연다. 이날 신한금융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8명의 사외 이사 가운데 3명을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는 모두 10명으로 이 중 김기영 전 광운대 총장과 히라카와 하루키 평천상사 대표, 필립 아기니에 BNP파리바 아태 본부장 등 3명의 사외이사가 물러난다.

공석에는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와 히라카와 필립 에이브릴 BNP파리바 일본대표, 유키 레벨리버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남궁훈 전 생명보험협회 회장과 고부인 ㈜산세이 대표이사, 권태은 나고야외국어대 명예교수, 김석원 전 신용정보협회 회장, 이상경 변호사는 재선임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27일 열리는 KB금융지주의 주총이다.

'KB사태'로 사외이사가 전원 사퇴한데다 '지배구조 개선안'도 확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외이사에는 신한금융과 삼성카드 등 경쟁사의 전직 사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KB금융은 최영휘 전 신한금융 사장,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병남 LG인화원 원장, 유석렬 전 삼성카드 사장 등 7명을 사외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후보군 구성과 추천단계에서부터 금융업과 회계, 재무,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인사·IT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영입했다"며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논의된 지배구조개선안도 최종 의결된다. 다만 회장 연임 우선권 등을 골자로 하는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계획안'은 차기 이사회 구성 후 결정할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KB의 경영승계 계획에 대한 회사 내·외부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이사진의 의견 반영도 필요하다고 봤다"며 "2015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이사진이 구성되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사회를 개최, KB의 발전과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며 사외이사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하나금융지주 주총에는 단독후보로 꼽힌 김정태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다.

김 회장은 주총을 통해 등기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또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사외이사 자리에 4명이 신규 선임된다.

신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에는 홍은주 한양대사이버대 교수와 이진국 전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윤성복 전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원근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추천됐다.

우리은행도 27일 주총을 개최, 기존 5명이었던 사외이사 수를 6명으로 새롭게 구성할 방침이다.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에는 홍일화 여성신문 우먼앤피플 상임고문과 천혜숙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기 호서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등 4명이 꼽혔다.

이밖에 농협금융은 오는 30일 주총을 실시한다. 이날 농협금융은 차기 회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차기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는 김용환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추천됐다. 김 전 행장은 이번 주총을 통해 내정자 신분을 벗게 된다. 이후 내달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직후 정식으로 취임하게 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다문화 여성 위한 '미즈 다문화 선발대회' 후원 NH농협은행은 23일 필리핀 한국인 배우자협회(FKSA) 주관으로 진행된 '미즈 다문화 선발대회'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제공

자보 손해율 88.3%… 최근 5년 중 최고

외자차 보험가입대수 전년 比 24.8% 급증

지난해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손해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차, 고가차 증가로 수리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입금액 고액화 경향도 이어졌다.

23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보 손해율은 88.3%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개발원은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온라인판매, 할인형상품 판매 확대 등에 따른 보험료 감소와 대물, 자차담보 등 물적담보 손해액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외산차 개인용 보험가입대수는 전년 대비 24.8% 증가한 88만대로 연평균 증가율(24.4%)을 상회했다.

외산차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5.5% 증가한 9241억원을 기록했다. 전체보험료에서 차지한 비중도 11.3%를 기록, 처음으로 두자릿수 비중을 보였다.

외산차 수리비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95만원) 대비 약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외산차 렌트비는 전년대비 27.8% 상승한 1352억원을 기록했다. 평균렌트비는 137만원으로 국산차(39만원)보다 3.6배 높았다.

2억원 이상 대물배상 가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2억원이상 가입자의 구성비는 56.3%에 달했다. 오프라인 2억원 이상 고액가입자의 구성비는 59.2%로 온라인(52.3%)보다 6.9%p 높았으나, 3억원 이상의 경우 온라인 가입자가 2배이상 많았다.

외산차의 고액가입자 구성비는 68.8%로, 국산차(55.4%) 보다 13.4%p 높았다.

이 기간 온라인 자보의 수입보험료는 3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36.9%로 최근 10년간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자보의 경우 30~40대의 온라인 가입비율이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의 온라인 자보 가입 구성비는 21.8%로 비수도권 가입자(20.8%)보다 약간 높았다. 반면, 오프라인 채널은 비수도권 가입자 비율이 33.3%로 수도권 24.1% 보다 높았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하나·외환銀, 광복 70주년 기념 상품 공동 출시

대한민국만세 정기예·적금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3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및 적금'을 공동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 은행이 계좌당 815원을 출연,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해외 독립유적지 보존사업을 후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 뱅킹에서 나라사랑 메시지를 작성시에는 연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김병호 은행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오전 외환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및 적금' 공동 출시를 축하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정기예금은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가입기간 1년이며 출시일 현재 금리는 우대금리 0.2% 포함 최고 2.05%다. 가입한도는 개인당 5000만원이다.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이며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이다. 가입한도는 자유적립식의 경우 월 100만원, 정액적립식의 경우 월 500만원이다.

금리는 3년제의 경우 우대금리 0.2% 포함 최고 3.1%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나·외환은행은 '대한민국만세 예금과 적금'을 가입한 고객 301명을 추첨해 안중근 의사 의거를 소재로 한 뮤지컬 '영웅'에 초대키로 했다.

또 가입고객 중 70명을 추첨해 중국내 대표적 항일 유적지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8150명에게는 태극기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병호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날 영업점에서 적금에 가입 후 "대한민국광복 70주년의 뜻을 되새기고 온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한 데 모으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립을 기념하며 나라사랑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행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더드림대출'도 공동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주별 최대 250억원까지 대출한도를 우대하고 총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보험업계 '빅데이터' 도입으로 불황 돌파

유럽 등 성공사례 자극… LIG손보·한화생명 등 잇따라 활용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가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란 기존 DB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분석해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청약 시스템 'STAR 청약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들의 매월 100만건 누적 청약 정보를 활용, 가입자 성별, 연령, 급수별 최적화된 유형을 바로 추천해준다.

LIG손보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험 설계 시 기존에 비해 2배 이상의 처리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지난 3일 전자청약시스템인 '스마트플래너'를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500여종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사가 실시간으로 상품별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8월 SK텔레콤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보험사기 고위험군 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사고 위험도를 점수로 측정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방지 체계를 분석해 전체 보험사기의 25%를 잡아내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도 올해부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내 보험사의 잇따른 빅데이터 도입은 보험 선진국에서의 성공사례가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영국 자동차보험시장에 뛰어든 인슈어더박스는 운전자의 다양한 운전습관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연계보험(UBI, User Based Insurance)을 도입했다. UBI는 자동차 운행정보를 전달·기록하는 차량 진단 시스템(OBD)를 활용해 안전 운행을 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급제동이나 급가속 등을 자주하면 보험료를 올려 받는 방식이다.

이 보험이 현지에서 성공하면서 영국은 지난 2009년 1만2000건에 불과했던 UBI 가입건수가 2012년 상반기에만 18만건으로 급증했다. 영국은 오는 2020년까지 UBI보험이 전체 자보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에서는 고객의 빅데이터 정보 제공을 전제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456만건에 달한다. 이는 2012년 190만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AIG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과학팀을 출범시켜 전사적인 핵심전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현업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각 사업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는 실내 연기와 누수를 원격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25% 할인해 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빅데이터 시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당국에서도 UBI를 연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부터 금융계열사 간 DB 공유가 금지되는 등 관련 법령도 시대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기업銀 기술금융 브랜드 'IBK T-Solution' 론칭 IBK기업은행은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권 최초로 기술금융 브랜드 'IBK T-Solution'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제공

삼성화재, 中 섬서성에 6번째 지점 개소

삼성화재는 23일(현지시간) 중국 섬서성 서안시에 섬서지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점 개소식 행사에는 삼성화재 안민수 사장과 황해청 서안시 부시장 등 중국 정부와 한국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지점 개설은 삼성화재가 지난 1월 9일 중국 진출 외자계 손해보험사로는 최초로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서부내륙지역 섬서성 영업인가를 획득한데 따른 것이다.

섬서지점은 북경·심천·소주·청도·천진지점에 이은 삼성화재 중국법인의 여섯번째 영업지점이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손보사 중 가장 많은 지점수다.

섬서지역은 중국 서부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으로, 삼성화재는 이곳에서 한국계 기업과 해외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기업보험 위주의 보험영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민수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안은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 사업 중심도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이번 지점 개설로 중국 동부연안 지역뿐만 아니라 서부내륙지역까지 영업거점을 확보하게 돼 중국법인의 새로운 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현재 해외에 11개국 22개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 1484억원을 달성, 매년 28.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형석기자

삼성화재는 23일(현지시간) 중국 섬서성 서안시에 섬서지점을 오픈했다. /삼성화재 제공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 후보자, 풀어야할 과제는?

수익성 개선·중앙회와 파트너십 강화해야

NH농협금융지주에 '김용환 호(號)'가 새롭게 출범한다.

23일 농협금융은 이날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농협금융 회장으로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62·사진)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임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한 달 째 공석이던 회장 업무를 빠르게 메꿔야 한다. 또 수익성 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구축과 중앙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숙제로 안게 됐다.

◆ '수익성 개선' 초점 맞출 듯

금융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 전 회장이 강조했던 '수익성 개선'과 '자산운용 강화'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농협금융은 자산 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협금융은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총자산이 393조원으로 국내 3위 금융그룹에 올라섰다.

이에 대표투자상품 '올셋(All set)'을 내놓고 최고투자책임자(CIO)체제를 도입하는 등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자산운용 역량이 정착되고 수익성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추진력과 시일이 필요한 것.

회추위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 김 후보를 추천했다.

회추위 관계자는 "김 후보의 다양한 금융분야 경험과 합리적인 리더십, 강한 추진력, 탁월한 소통 능력 등을 주요하게 봤다"며 "김 후보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을 거쳐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해 금융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은행장 경력은 물론 증권업과 보험업 등에 대한 전문성과 빼어난 국제금융 감각이 타 후보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아, 농협금융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정책과 감독, 은행 CEO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점은 김 후보자의 강점이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증권감독과장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회·지주간 조율… 심사 후 취임

중앙회와 지주사 간의 파트너십을 조율해야 하는 것도 그에게 떨어진 숙제다.

농협중앙회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제사업을 지주사에 이관해야 하는 만큼 정부, 중앙회와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 특유의 지배구조에 적응해야 한다. 앞서 농협은 2012년 신경(금융·경제) 분리를 거쳐 금융지주를 출범시켰지만, 농협법에 따라 여전히 중앙회가 관리·감독을 할 뿐 아니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승인하고 있다.

사실상 농협중앙회의 입김에 크게 좌우되어 온 것.

한편 김 후보자는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내정자 신분을 얻게 되며, 다음 달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직후 정식 취임하게 된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김 후보의 경우 작년 2월 퇴임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간(퇴임 후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정식 취임은 내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KDB대우증권, 개봉동·마포지점서 투자설명회

KDB대우증권이 개봉동지점(24일)과 마포지점(25일)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개봉동지점은 2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원준 PB팀장이 강사로 나와 '비과세종합저축과 투자상품 안내'를 주제로, 마포지점은 25일 오후 4시부터 채정훈 PB팀장이 강사로 나와 '주식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종목'을 주제로 강의한다.

각 지점 설명회 문의는 개봉동지점(02-2616-6655), 마포지점(02-719-8862)으로 하면 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증권사, 3년만에 '임금 인상' 나선다

교보·신한금융투자 등 6곳 합의… 지난해보다 최소 1.5%↑

증권업계가 지난해 실적 개선에 성공하면서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임금 동결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증권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고 나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소속 6개 증권사의 노사는 지난해 임금 '1.5%+α' 인상안에 합의했다.

사무금융노조에 소속된 증권사는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SK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6곳이다.

이들 증권사의 2014년 통일 임단협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노사의 대립 등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 1월 타결됐다.

증권사들은 최소 1.5%의 임금 인상을 약속하고, 추가 지급분은 사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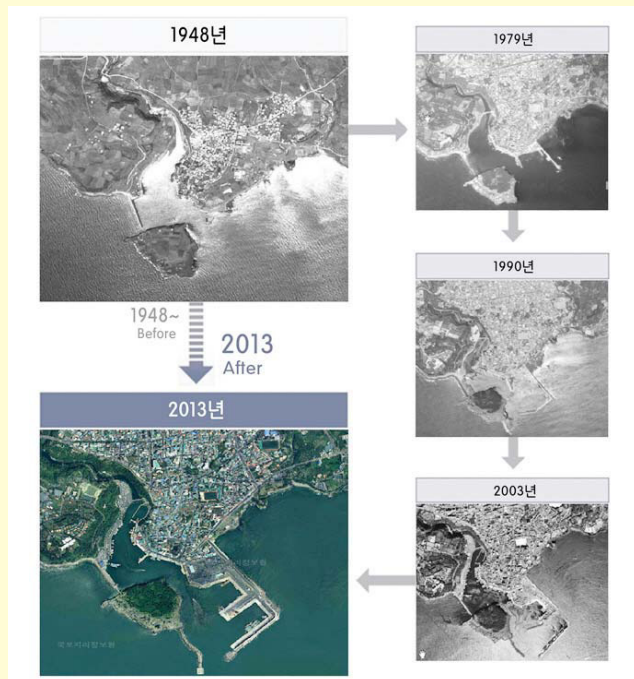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증권업의 침체 속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임금 동결이 지속된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증권사의 실적이 좋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58개 증권사 직원 수는 3만6561명으로, 전년 4만245명보다 3684명 줄었다. 연간 감축 인원도 2013년 2557명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났다. 최근 2년간 증권사 감원 규모는 6241명에 이른다. 증권사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실적이 나아지자 2년 만에 임금 인상이 현실화했다.

지난해 증권사 58곳의 당기순이익 합은 1조7032억원으로 전년도(2592억원)보다 557% 늘었다. 이는 2조21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권사 가운데 3년 만에 성과급을 지급한 곳도 있다.

삼성증권은 경영실적에 기반해 지급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을 4년 만에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하나대투증권도 실적 연동 성과급 제도를 처음 만들어 올해 1월 성과급을 지급했다. 증권사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사무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을 다음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서귀포항 항공사진.

광복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변천사

국토영상정보 서비스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토의 모습과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토영상정보서비스'를 23일부터 제공한다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밝혔다.

1945년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항공사진(디지털 파일 형태) 약 52만 장과 국토의 3차원 지형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등이 일반에 제공된다.

특히 1945~1952년 항공사진은 광복부터 6·25전쟁 당시의 국토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영상자료로,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 활용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사진은 '국토영상정보서비스(http://air.ngi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하는 위치의 연도별 영상을 검색·열람·발급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NH투자증권,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에 '희망나무 장학금' 전달 NH투자증권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0기 희망나무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NH투자증권 제공

올 공공분양주택 1만5천호 입주자 모집

국토부,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1% 공급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분양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LH·SH·경기공사 등에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남양주다산, 부천옥길 등 수도권에서 전체 물량의 61%인 9219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5901호가 입주자를 기다릴 예정이다. 월별로는 4~5월에 5000호, 10월에 3000호가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나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철기자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서산' 27일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서산테크노밸리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서산' 아파트 분양에 돌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27일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에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서산시에 최초로 입성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단일브랜드로는 최대 규모다. '힐스테이트 서산'은 지하3층~지상24층, 13개동 총892가구 규모며 전가구 전용면적 75㎡와 84㎡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75㎡타입 279가구, 84㎡ A타입 236가구, 84㎡ B타입 377가구다.

'힐스테이트 서산'은 전용 84㎡ B타입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 4bay설계를 적용했다. 서산 내 산업단지 배후수요를 고려해 전용 84㎡ A타입의 경우 '선택형 부분임대'를 서산시 최초로 도입했다.

지형을 고려한 단지배치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에 호수공원과 근린 공원이 있어 맞통풍 환기를 극대화할 판상형 위주로 단지를 조성했고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서산'이 위치한 '서산 테크노밸리'는 서산시 최초의 자급자족형 첨단복합도시다. 한화케미칼 등의 대기업을 비롯해 300개의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며 3조원에 이르는 연간 매출액과 1만8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며 조성됐다.

분양가는 3.3㎡당 610만원대부터 책정될 예정이다. 최근 서산시 일대에 분양됐던 아파트보다 3.3㎡당 평균 70만~80만원 저렴한 금액이다.

'힐스테이트 서산' 분양관계자는 "미래가치가 높은 서산 테크노밸리 일대에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충남 서산시 예천동 1255-1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10월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제도 개선 후 주식선물 거래 급증

주식선물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품 확대와 제도 개선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식선물 하루평균 거래량은 49만1057계약으로 지난 2013년 38만8138계약 보다 26.5% 증가했다.

주식선물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3573억원으로, 2013년 2517억원 보다 42.0% 늘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선물의 하루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30.3%, 32.3% 감소했다. 코스피200옵션은 각각 24.2%, 40.3%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선물 관련 제도를 개선한 영향으로 시장이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주식선물 기초자산이 25개에서 60개로 확대됐으며 11월에는 시장조성자제도와 협의대량거래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개선 이후 금융투자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선물 거래비중은 증가한 반면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금융투자업자의 비중은 9.5%에서 14.7%로 늘었고, 개인 비중은 62.4%에서 58.7%로 감소했다.

/김민지기자

무선 충전 보완 필요… 디자인·그립감은 굿

갤럭시S6 체험해보니…

갤럭시S6·S6엣지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국내 이동 3사가 23일부터 대대적인 체험 행사를 시작했다.

이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특장점을 소비자들이 직접 만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올레스퀘어를 찾아 갤럭시S6를 직접 조작해봤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연용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제품 테스트를 위해 추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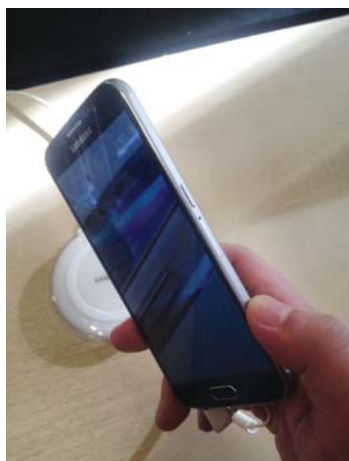
◆ 무선 충전·DMB 아쉬움

삼성전자는 갤럭시S6의 핵심 기술로 무선 충전을 강조했다. 갤럭시S6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은 유선보다는 확실히 편리했다. 다만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 패드 정 중앙에 위치시켜야만 충전이 된다는 점 때문에 중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가드 같은 것이 있으면 충전이 안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갤럭시노트4 출시 당시 단점으로 지적된 무선충전 패드 인식률을 완벽하게 끌어올리지 못했다.

또 DMB 기능이 사라졌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출시하는 제품에는 DMB 기능이 탑재될 수 있지만 시연용 제품에는 DMB 기능을 찾아볼 수 없었다.

◆ 디자인·그립감·가벼운 무게 높은 점수

"디자인 좋은데. 갖고싶다." "무게도 엄청 가벼워졌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S6를 매장에서 처음만난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이날 갤럭시S6를 처음으로 손에 쥔 소비자들은 디자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6 시리즈에서 강조한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통한 것이다.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은 "삼성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마트폰"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을 정도다. 그립감은 5.1인치 화면 크기와 무게(138g)는 성인 여성의 손에도 큰 부담이 없을 정도였다. 다만 제품 본체에 다소 많은 지문이 묻는 점은 아쉬웠다.

일상생활에서 셀카(셀프카메라)를 즐기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기능도 있다. 셀카 모드를 실행한 후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뒷면의 심박센서를 터치한 뒤 떼면 자동 촬영된다. 별도의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 편리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경북 구미 소재 메탈가공 전문업체 '케이티테크(KT-Tech)' 강호원 대표와 삼성전자 멘토가 함께 휴대폰 메탈 케이스 금형 개선과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 팩토리' DNA 전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

삼성은 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조혁신 교육 과정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진과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삼성전자의 제조 철학과 노하우뿐 아니라 IT(정보기술)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의 제조 철학과 추진 방법을 전수해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조혁신 전문가 과정'은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연 4차례 진행된다.

제조 공정을 3D로 시뮬레이션해 낭비요소를 줄이고 공정을 효율화하는 미래형제조기술을 습득하는 '공정 시뮬레이션 툴 과정'과 모바일 기기를 제조혁신 도구로 활용, 실시간 제조현황을 분석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생산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과정' 은 5월부터 연 2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올해 경북지역에 100개 '스마트 팩토리' 조기 육성을 위해 제조 전문 인력 30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해 우수 후보 업체 선정과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삼성은 경북 지역에 100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제조 전문 인력 30명을 혁신센터에 투입하고 경북도와 각 100억원씩 출연한 R펀드 프로그램 운영도 이달 말 시작한다.

/양성운기자 ysw@

삼성·현대차·SK 등 '청소년 진로탐색' 길 연다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 기간 중 삼성·현대차·SK 등 기업탐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꿈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재계가 교육부와 함께 중학생의 진로 탐색을 지원키로 하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중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대한 기업 진로탐색 프로그램 안내와 신청·문의 응대 등을 위한 전국 단위 프로세스를 정비키로 했다.

허창수 회장은 "경제계는 소중한 미래 인적 자원인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적성을 찾고 바람직한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계적인 기업가의 꿈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GS, 한화, CJ 등 주요 그룹 및 계열사들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올해 2학기부터 중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경제인연합회-교육부간 MOU 체결식'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왼쪽)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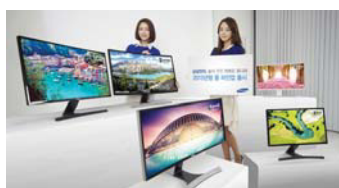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중학생들이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에너지, 미디어·문화, 쇼핑 등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에 참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전경련은 기업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2학기 이후 추진되며, 추후 준비될 교육부의 신청 절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별 프로그램을 게시하는 온라인 안내 페이지 구축과 함께 일선 학교에 대한 안내를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정훈기자 sjh@

삼성전자, '눈이 편한' 커브드 모니터 5종 출시

삼성전자는 '커브드(곡면)' 디자인과 '플리커 프리'로 눈의 편안함을 강조한 2015년형 커브드 모니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23.5인치부터 31.5인치까지 5종으로 29인치 이상 모델에는 3000R 곡률을, 29인치 이하 모델에는 4000R 곡률을 적용했다. 3000R 곡률은 업계 최초다.

커브드 모니터는 중앙과 측면의 시청거리 변화를 최소화해 눈의 움직임을 줄여주고 영상 재현 시 화면의 왜곡이 없어 사용자에게 시각적 편안함을 선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화면 깜빡임을 줄인 '플리커 프리' 기술과 장시간 시청에도 눈을 보호하는 '아이 세이버 모드'도 눈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김성준 서울대병원 안과 전문의 교수는 "커브드 모니터는 평면 모니터에 비해 화면 중앙과 외곽간의 시청거리 변화가 적어 눈에 피로도 저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LG전자 미니빔 TV 시장 경쟁력 강화

국내 최초로 TV튜너가 달린 빔 프로젝터를 출시한 LG전자가 잇따라 미니빔 TV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LG전자는 LED(발광다이오드)를 광원으로 하는 프로젝터 미니빔 TV 새 제품 두 가지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TV 튜너를 내장해 안테나만 있으면 야외에서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는 제품이다. LED 수명이 최대 3만 시간이어서 광원을 교체하지 않고 하루 8시간씩 10년간 쓸 수 있다.

PF1500 모델은 풀HD 해상도에 최대 1400 안시루멘의 밝기, 15만대1의 명암비로 밝고 선명한 영상이 나온다. 프로젝터가 화면을 쏘는 각도 때문에 코너가 찌그러지는 현상을 모서리 보정으로 해소한 4코너 키스톤 기능, 영상 크기를 조절하는 줌 기능도 갖췄다.

사운드바 등 블루투스 음향 기기와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PW800 모델은 생수 한 병(600g) 무게로 휴대하기 쉽다. 가격은 PF1500이 140만원, PW800은 85만원이다.

/양성운기자

제주항공 vs 진에어…"대한항공, 아시아나 다음은 나"

LCC 선두 경쟁… 노선 확장 등 '규모의 경제' 총력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왼쪽)와 제주항공 B737-800 여객기.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가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 자리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격전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선두 수성을, 진에어는 판도 변화를 위해 각각 노선 확장과 공급석 증대, 여객기 도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나섰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23일 나란히 올해 하계 시즌 증편 계획을 밝혔다.

각사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내외 정기노선을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주417회로 확대한다. 국내선은 주229회, 국제선은 주188회로 운항횟수가 늘어난다.

국제노선은 8개국 18개 도시 24개 노선으로 확장한다.

4개의 국내노선을 포함해 모두 28개의 국내외 노선망을 갖출 계획이다.

보잉사의 B737-800 항공기 18대를 운용하고 있는 제주항공은 연말까지 동일 기종을 21대로 늘릴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기단 확대를 통해 올해 국내선 460만석, 국제선 315만석 등 총 775만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국내선 24.0%, 국제선 21.6% 등 총 23.0% 증가한 규모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선을 증편하는 것은 제주기점 국내선 여객점유율을 20%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시장지배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확장으로 제주항공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선을 12개 늘리는 한편 항공기를 6대 추가 도입해 총 보유좌석 기준 업계 1위로 올라설 계산이다.

올해 초 취항한 2개 노선을 포함해 국제선 16개, 국내선 2개 노선을 운영 중인 진에어는 올 하반기 10개 노선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6대의 항공기를 신규 도입해 연말 기준 19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도입 예정인 항공기는 B737-800 기종 4대와 B777-200ER 기종 2대다.

진에어는 B737-800 12대, B777-200ER 1대 등 13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B777-200ER 기종에는 180~189석인 B737-800 항공기의 2배 수준인 355~393석을 장착한다.

이에 사측은 연말이면 B777-200ER 기종 3대를 확보하면서 총 보유좌석이 약 4100석으로 늘어 국내 LCC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원 진에어 대표이사는 "규모의 경제와 전략적인 경영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펼쳐 보일 것"이라며 "올해는 항공기 6대 증가, 12개 노선 확대, 장거리 노선 취항 등 양과 질적인 면을 모두 충족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문화가 있는 날 '아름다운 로비음악회'

금호아시아나, 내일 개최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이달 마지막주 수요일인 25일 오후 6시 15분에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 1층 로비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저녁 열리는 이번 '아름다운 로비음악회'에는 팝페라 가수 박봉곤과 뮤지컬 배우 등으로 구성된 '뮤지컬 러브러브'팀이 약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뮤지컬 러브러브는 이번 공연에서 '넬라판타지아', '지금 이 순간', '올 댓 재즈' 등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뮤지컬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로비음악회는 뮤지컬 곡들에 대한 해설을 함께 곁들여 관객들이 보다 쉽게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로비 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동참하며 마련됐다. 지난 해부터 10차례 열렸던 로비음악회는 금호아시아나 임직원 외에도 퇴근길의 주변 직장인들, 시민들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

광주 유·스퀘어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야외광장에서 저녁 6시부터 '넬라루체 중창단'을 초청해 친숙하고 쉬운 세미클래식과 영화 음악, 가요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금호미술관 역시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료를 50% 할인해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 밖에도 금호아시아나는 도서산간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학교를 찾아가 음악회를 펼치는 '찾아가는 사랑의 금호아트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원데이 비전'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양소리기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3월 23일 '두산인 봉사의 날' 행사를 맞아 서울 중구 을지로 두산타워 광장에서 임직원 200여 명과 함께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가구 만들기 작업에 나섰다. /두산그룹 제공

두산, 16개국서 '봉사의 날' 동시진행

158개 사업장서 1만여명 참석

두산은 23일 전 세계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산인 봉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두산인 봉사의 날'은 두산이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임직원이 각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찾아 공헌활동을 하는 행사다. 두산 측은 첫 행사 때는 13개국 130개 사업장에서 진행한 행사를 확대해 16개국 158개 사업장에서 임직원 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임직원들은 소외계층 방문 봉사, 지역 환경정화, 음식기부, 헌혈, 도로보수 지원, 복지시설 보수, 농촌 일손돕기 등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국은 지역 커뮤니티센터에 휠체어용 입구를 설치하고, 체코에서는 의료센터 시설 개보수를 지원했다. 인도에서는 빈민가 학교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산책로 조성(미국), 책과 학습용 장난감 기증(브라질), 환경 정화 활동(중국)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이날 두산타워 앞 광장에서는 '따뜻한 가구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저소득층 가정에 보낼 가구를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정된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국내외 임직원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임직원이 같은 날 한 마음으로 주변에 온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남다른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두 힘을 모아서 '두산인 봉사의 날'을 두산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푸조 2008 스페셜 모델 출시… 3150만원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에 스포티한 감성을 더한 '푸조 2008 아이코닉 에디션'(사진)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푸조 2008 아이코닉 에디션은 최근 푸조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떠오른 푸조 2008에 컬러 액세서리를 더한 스페셜 모델이다.

2008의 최상위 트림인 펠린 L 모델을 기본으로 차량 측면의 하단,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를 감싸는 컬러 디자인 커버 시트와 함께 컬러 휠 캡이 더해진다.

색상은 고객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그린(Green), 오렌지(Orange), 핑크(Pink) 중 선택할 수 있다.

푸조 2008 아이코닉 에디션은 3150만원(부가세 포함)에 판매된다.

2008 펠린 L 모델을 구매한 고객이 주변 지인에게 차량을 추천해 최종 2008 계약이 진행되면, 푸조 2008 아이코닉 에디션과 같은 컬러 액세서리를 제공한다. /이정필기자

대한항공, 임직원 수험생자녀 대입 설명회

대한항공은 전남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16년 대입 핵심 변경사항, 수시모집 지원전략, 1학기 해야 할 일(To do List)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임직원 및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2년 시작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한항공 입시설명회는 매년 입시 전문가를 초빙해 대학 입시를 앞둔 임직원 가족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밖에도 임직원들에게 대학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회사가 보험금을 함께 부담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자가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이정필기자 roman@

한화, 정유사업 재도전?

삼성토탈 인수 내달 중 마무리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외환위기 때 팔아치운 정유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다.

김 회장은 1970년 설립한 경인에너지를 1999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현대오일뱅크에 매각한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마취도 안 하고 수술 받은 심정"이라며 정유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회장에게 다시 정유사를 손에 쥘 기회가 왔다. 23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삼성토탈 인수 작업이 다음 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토탈은 2013년 6월부터 매달 휘발유와 경유 각각 10만 배럴을 알뜰주유소에 공급해왔다. 삼성토탈의 원유처리 물량은 하루 15만 배럴로 현대오일뱅크의 40% 규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삼성토탈의 경우 지난 2010년 9월 정제업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미 다섯 번째 정유사나 마찬가지"라고도 말했다.

삼성토탈은 작년 대한석유협회 회원가입에 실패한 바 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로 구성된 대한석유협회 이사회는 지난해 삼성토탈의 석유협회 가입을 보류했다. "삼성토탈은 석화기업으로 정유업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삼성토탈이 이번에 한화로 이름을 바꿔달고 도전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1999년 매각한 경인에너지가 석유협회 출범 당시 창립 멤버였던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삼성토탈 측은 "(삼성토탈의 협회 가입안건이)작년 대한석유협회 이사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라 올해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그룹 차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들은 한화가 주유소 사업에 진출한다면 삼성토탈이 기름을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브랜드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삼성토탈은 알뜰주유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도 적정한 시기에 알뜰주유소 사업을 민간사업자에 이양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알뜰주유소 역시 한화로 이양이 싫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알뜰주유소 관계자는 "한화로 브랜드를 달 경우 소비자들이 더 믿고 소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대형 정유사의 횡포를 못 이기고 나온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이 다시 대형 정유사의 갑질이 되풀이될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대한항공 노사, 임금협상 타결…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합의 23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2014 임단협 조인식에서 지창훈 총괄사장(왼쪽)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기아타이거즈 홈런터지면 선물 쏜다

기아차, 광주구장 홈전존 이벤트

기아자동차는 28일 프로야구 개막전부터 2015 프로야구 정규 시즌 동안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기아 홈런존을 마련한다.

또 홈런 및 홈런볼 이벤트 등을 실시해 경기장을 찾는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기아차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우측 외야 잔디석에 기아 홈런존을 마련하고 기간에 따라 올뉴 쏘렌토, 신형 K5, 신형 스포티지 등의 차량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기아 홈런존으로 바운드 없이 홈런을 친 선수에게는 홈런존에 전시된 차량을 증정하는 '홈런 이벤트'를, 기아 홈런존으로 날아온 홈런볼을 주운 관중에게는 '2016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시즌권'을 증정하는 '홈런볼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울러 경기장을 찾는 관중을 대상으로 '오늘의 홈런 타이거즈 선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홈런존에 홈런을 친 선수를 맞춘 고객 1명에게는 '2016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시즌권'을, 일반 홈런을 친 선수를 맞춘 고객 5명에게는 '또봇'을 증정한다.

또한 기아차는 5회 말 종료 후 경기장을 정비하는 클리닝 타임을 활용해 고객이 직접 기아차 쏘울과 레이 미니카 레이싱을 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벌이고 체험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도 증정한다.

기아차는 구장 펜스와 덕아웃 등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주요 시설물에 기아차 로고와 다양한 차종 브랜드를 홍보한다.

투수 교체 시 K3 오픈카와 신형 K5의 오픈카를 불펜카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현대차, 새로운 디자인철학 밀라노 디자인위크서 공개

현대자동차는 다음달 13일부터 개최되는 '2015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자사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루빈 마골린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키네틱 아트 작품 '스컬프쳐 인 모션(Sculpture in Motion)'의 2세대 버전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이다.

사측에 따르면 '스컬프쳐 인 모션'은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 '플루이딕 스컬프쳐(Fluidic Sculpture)'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설치 미술 작품이다.

지난 2013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1세대 버전을 공개한 바 있다.

현대차의 자동차 관련 사운드 전문 연구조직 '사운드 디자인 리서치랩'은 작품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사운드 트랙을 직접 작곡하는 등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을 소리로 표현해냈다고 전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패션, 자동차,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디자인 관련 활동을 선보이는 디자인 전시회다.

렉서스,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20여개 이상의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매해 디자인 어워드, 워크샵과 예술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정필기자 roman@

한국타이어, 레드닷 어워드 2개 상품 수상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는 자사 2개 상품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5'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수상품은 고성능 겨울용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에보2'와 겨울용 트럭버스 타이어 '스마트 컨트롤 AW02' 2종이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올해 초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까지 잇달아 수상했다고 전했다.

윈터 아이셉트 에보2는 고속주행 시 퍼포먼스와 윈터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고성능 겨울용 타이어다.

비대칭 블록 설계를 통해 겨울철 노면에 최적화된 드라이빙을 실현한다.

올 하반기 국내외에 출시될 예정이다. 스마트 컨트롤 AW02는 겨울용 트럭버스 타이어다.

빙판과 눈길에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뿐 아니라 마일리지 성능을 높이고 가혹한 사용조건에서의 고무 갈라짐에 강하도록 디자인됐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레드닷 어워드 수상은 한국타이어의 우수한 디자인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S-OIL, 지역주민 문화공연 후원금 전달

에쓰오일(S-OIL)은 23일 서울 마포 본사 사옥에서 문화나눔네트워크 '시루'(대표 표재순)에 공연예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조영일 에쓰오일 CFO(왼쪽)가 표재순 '시루' 대표에게 후원금 2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S-OIL이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마포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시작한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이다.

S-OIL은 본사 사옥 로비와 대강당에서 그동안 54회의 공연을 개최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1만7500여명이 관람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올해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비롯해 연극·뮤지컬·국악 등의 공연을 열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갤러리아, AK플라자에 참패… 업계 5위 추락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실패에 한화그룹 매각설까지
AK플라자, 수원·원주 등 지역 선전… '빅4' 도약

백화점 업계 4위 자리를 놓고 갤러리아백화점이 AK플라자에 참패했다.

시장에선 한화그룹이 삼성그룹 방산, 화학 계열 4개 회사 인수에 나서며 계열사인 갤러리아 백화점을 매각할 것이란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갤러리아백화점 매출은 2조500억원으로 AK플라자 2조1500억원에 비해 1000억원 가량 뒤지며 4위에서 5위로 밀려났다. 애경그룹의 백화점 4위권 진입은 1993년 백화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1년만이다.

롯데백화점은 14조2000억원, 현대백화점은 6조9800억원, 신세계백화점은 6조3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사 모두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의 매출은 2013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억원으로 2% 역성장했다. 갤러리아측은 지난해 명품관 웨스트의 리뉴얼에 따라 2개월간 휴점을 한 데 따른 매출 손실, 여기에 부산 동백점 매각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이 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갤러리아 측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을 제외한 점포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AK플라자에 비해 2000억~3000억원 가량 앞서는 만큼 순수한 백화점 실적으로는 여전히 업계 4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갤러리아의 지난해 쇼핑몰, 면세점, 법인영업을 제외한 순수한 백화점 매출은 1조7987억원으로 2013년 1조8463억원에 비해서도 476억원이 줄었다.

갤러리아의 추락은 2013년 서울역 콩코스점을 롯데쇼핑에 임대하고, 이랜드리테일에 대전 동백점을 매각하면서부터다. 현재 갤러리아백화점은 압구정점, 센터시티(천안), 타임월드(대전), 수원, 진주 총 5개 매장만을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아와 AK플라자의 점포수가 5개로 같아지면서 연간 매출액 차이도 좁혀졌다.

갤러리아가 전통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가치인 '프리미엄', '귀족' 마케팅도 지역 정서를 파고들지 못한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식품관 고급화, 직매입 상품 강화 등은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 한화갤러리아의 수장이 된 황용득(61·사진) 대표의 새해 첫 숙제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이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반면 AK플라자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소비둔화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4%에 가까운 성장을 하며 갤러리아백화점을 추월했다. AK플라자는 2012년 1조9500억원, 2013년 2조7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대비 성장률은 2012년 11.5%, 2013년 8.7%, 2014년 3.9%로 3년 평균 8%를 기록했다.

AK플라자 관계자는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신장세는 줄고 있지만 역성장이나 1~2%대 성장을 하는 다른 백화점에 비해 성장률은 1위"라며 "구로본점·수원점·분당점·평택점·원주점 5개 백화점 모두 지역 1위를 유지하며 선전한 것이 '빅4' 도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롯데 '신동빈 체제' 강화

신동주 건설 이사서 퇴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사진)의 그룹내 입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3일 롯데건설은 주주총회를 열고 오는 31일로 등기임원(이사)이 만료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았다.

대신 롯데건설은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임고문직으로 전환했다. 롯데건설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올해 초 일본내 임원직을 모두 상실한데 이어 한국 롯데그룹내에서도 임원직을 내놓은 사례인 만큼 그룹 후계구도와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13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롯데호텔의 등기이사직에 처음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대주주인 롯데호텔은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롯데의 핵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갈등설이나 경영권 다툼설 등이 제기된 바 있다"며 "경위야 어찌됐던 최근 양상은 신동빈 회장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CJ도너스캠프, 패션디자이너 지망생 대상 특강 CJ그룹의 청소년 후원 프로그램 CJ도너스캠프는 지난 21~22일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전국 공부방 중고생 100여명을 초청해 디자이너 체험 실습 특강 '꿈키움 패션위크'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패션 디자인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패션 기획, 디자인, 제작, 발표에 이르는 실무 과정을 체험했다.

호텔신라, 면세기업 디패스 인수

美 진출 교두보 확보

이부진(45·사진) 호텔신라 사장의 글로벌 행보가 거침없다. 올 초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면세점을 오픈한데 이어 미국 면세기업 인수에도 나섰다.

호텔신라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중견 면세기업인 디패스(DFASS)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 44%를 1억500만 달러(한화 약 1176억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계약에는 이번 인수에 이어 5년 후 지분 36%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도 포함됐다.

호텔신라는 이번 디패스 인수를 통해 미주지역 등에 면세 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또 선진 구매역량 보유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글로벌 면세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번 디패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면세사업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면세사업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패스는 1987년 설립된 미주지역 중심의 면세사업자로 △면세 도매유통과 △기내 면세점 △공항과 국경지역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주주이자 창업자인 버나드 클리파시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5억1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테크원·맥스웰 하우스 유통업체별 가격차 5배

소비자원, 2월 생필품 가격조사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2월 주요 생필품 가격이 전월보다 평균 0.9%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생필품 평균 판매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2월 농축산물(102.1)과 가공식품(100.2)의 평균 판매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일반 공산품(99.5) 가격은 하락했다.

전월 대비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쌈장(8.5%) ▲양파(8.0%) ▲즉석우동(7.1%) ▲과일주스(7.0%) ▲생리대(6.0%) 등이다.

반면 전월 대비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부침가루(-10.2%) ▲혼합조미료(-7.7%) ▲당면(-5.3%) ▲버터(-5.0%) ▲세탁세제(-3.7%) 등이다.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은 CJ라이온 주방세제 'CJ참그린'(15.6%)이 가장 높았고 가격 하락률은 LG생활건강의 세탁세제 '테크(단품)'(-24%)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별 최고·최저 판매가격에서는 ▲LG생활건강의 테크(단품)가 5.5배로 가장 차이가 컸다. 그 뒤를 이어 ▲동서식품 맥스웰 하우스 오리지날(175ml) 5배 ▲유니레버 코리아 도브 뷰티바 3.8배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생필품을 구매하기 전 가격정보 포털사이트인 참가격에서 판매가격을 비교하고 구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Upgrade the quality of your life!

Baumgarten

Baumgarten

독일어로 '나무'를 뜻하는 '바움'과 정원을 뜻하는
'가르텐'의 합성어로 나무가 있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세대마다 넓은 정원을 갖추고 있는 바움가르텐은 유럽 지중해의
산토리니 마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고품격 타운하우스입니다.

전원생활의 여유와 도심의 편리함을 누립니다

삶이 완성되는 주거명작

수지 동천동 단독형 타운하우스 – 바움가르텐

광교산의 대자연과 도심의 편리한 생활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원 교향곡

천혜의 자연 : 아름다운 광교산과 단지가 직접 산책로로 연결된 쾌적한 생활
쾌적한 교통 : 강남 20분, 분당 10분,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
편리한 생활 : 분당서울대병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이마트 등 문화 편의시설
뛰어난 교육 : 동천초, 한빛초, 수지중, 한빛중, 수지고, 낙생고 등 뛰어난 학군 구성

책임 준공

청약계좌

- 국민은행 : 810301-00-034533
- 예 금 주 : 대한토지신탁
- 청 약 금 : 300만원 (미 계약시 전액 환불)

분양문의

031.262-8840

■시행 : (주)한양컨설팅 ■시공 : 청정종합건영(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없어서 못 팔아”… 봄 운동화 판매 好好

‘성수기’ 3월들어 완판 행진

날씨가 풀리는 3월이 되면서 운동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초도 물량이 동나 추가 물량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LS네트웍스의 스케쳐스가 지난달 1일 출시한 딜라이트 익스트림 와일드팬더는 최근까지 판매율 90%를 넘어서는 등 완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매장마다 잔여 수량이 동나고 있어 여름 쯤 추가 물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와일드팬더는 지난해 60족 판매됐던 딜라이트 시리즈의 올해 첫 제품이다. LS네트웍스는 와일드팬더가 인기를 얻자 지난 20일 ‘딜라이트 익스트림 베리’ 선판매를 진행하는 등 신제품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휠라도 봄 주력상품 ‘젤라또’(사진)는 일부 색상이 출시 한 달여 만에 초도 물량의 70%가 소진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스크림 ‘젤라또’에서 착안해 여성을 타깃으로 디자인된 제품이다.

포니의 ‘마제스틱’은 1월 출시 이후 누적으로 1만 5000켤레 가량 판매됐다. 러닝화의 편안한 착화감과 일상에서 활용도 높은 디자인으로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포니 측은 설명했다. 이 추세라면 6월까지 8만 켤레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3월부터고, 신학기도 끼어있어 많이 팔린다”며 “3월부터 업계에서도 신제품 홍보·마케팅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CJ제일제당-농협, 고부가가치 식품사업 협력

CJ제일제당과 농협이 고부가가치 식품사업과 가공식품 개발을 함께 추진하기로 23일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곧 두 회사는 농협의 밀양 농공단지를 활용한 식품사업, 생산시설 건립·운영, 브랜딩, 마케팅,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공동 개발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양사의 협력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균형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상생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감귤 농축액 3만8000t 수매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제주 감귤재배농가와 손잡고 상생주스 ‘제주사랑 감귤사랑’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제주 감귤을 농축한 주스로, 감귤과즙이 50% 들어있다. 롯데칠성음료 측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을 맺고 감귤 농축액 3만8000t을 수매해 만든 제품이다.

이재혁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제품 출시에 앞서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첫 걸음으로 지난 1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만나 가공용 제주감귤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감귤 가공공장인 제주공장의 가동기간 연장과 감귤 추가 수매 관련 협의를 가졌다.

종류는 180㎖ 병(1000원), 500㎖·1.5ℓ·1.8ℓ 페트(1500원·2300원·3000원) 4가지다.

aT, 농수산식품 발전방안 모색 자문회의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창조경제 시대 농식품 산업의 과제와 유통·수급·수출·식품 분야에 대한 공사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23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전체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는 유통개선, 수급관리, 수출진흥, 농식품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12년부터 농업, 식품,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별·지역별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은 각계의 자문위원 200여명을 초청해 농수산식품의 창조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자문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쇼핑 메카’ 동대문 상권 구원투수는?

롯데 이은 현대百 진출에 기대반·우려반… 소상공인들 매출 하락 우려

‘쇼핑의 메카’ 동대문 상권이 부활할 수 있을까.

롯데에 이어 현대까지 유통 대기업들이 가세하면서 2000년대 이후 침체됐던 동대문 상권이 어떻게 재편될 지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불황 속에 아직 장밋빛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유통 대기업들의 진출로 기존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대문 상권. /롯데자산개발 제공

현대백화점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동대문 쇼핑몰 타운에 위치한 ‘케레스타(구 거평크레야)’ 건물 임차 계약을 맺었다. 케레스타는 지하 6층~지상 23층, 연면적 12만4000㎡ 규모의 복합건물이다. 현대백화점은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영업면적은 3만9600㎡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보다 30% 가량 넓다. 현대백화점은 동대문 케레스타를 도심형 아웃렛이나 면세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연내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동대문 진출과 관련 상권 관계자들의 반응은 일단 우호적이다. 동대문 쇼핑몰 관계자는 “불황 속에 동대문 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현대백화점의 동대문 상권 진출은 일단 다소간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양한 업종의 아울렛과 면세점이 들어선다면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대문의 터줏대감 두타 역시 지난해 2층 여성의류 매장 1000여평을 리모델링해 콘셉트숍 형태로 재개점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두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했지만 불황으로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기대에 미치진 못하지만 리모델링으로 변화를 시도를 해 그마나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자산개발은 2013년 옛 동대문 패션TV 건물을 재단장, 쇼핑몰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을 개점했다. 이후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롯데의 유통 노하우를 통해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에 다양함을 시도 중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함께 동대문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롯데도 아직까지 가시화된 성과는 미미하다.

롯데에 이어 현대백화점까지 동대문 상권에 진출하며 기존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대문 쇼핑몰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들이 동대문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는 일조하겠지만 현대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더 심해질 게 불보듯 뻔하다”며 “그동안 힘들게 형성해 놓은 상권을 이젠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美 하버드, ‘이재현 회장 한류 투자’ 배운다

‘CJ E&M: 미국에서 한류 확산하기’ 사례집, 하버드대 MBA교재로 활용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리스크를 감수한 한류 글로벌 투자 사례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육된다.

CJ 그룹은 한류의 북미 확산과 ‘코리아’ 브랜드 견인을 위해 출범한 한류 페스티벌 ‘KCON’ 투자 사례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재로 사용된다고 23일 밝혔다.

‘CJ E&M: 미국에서 한류 확산하기(CJ E&M: Creating K-Culture in the U.S.)’라는 제목의 하버드 경영 사례 연구집은 2013년 KCON의 탄생 과정과 이재현 회장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하버드 경영 사례 연구집에 한국 기업 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체가 다뤄진 적은 있지만, 소프트파워를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 케이스가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례 연구집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엘리 오펙(Elie Ofek) 교수와 서울대 경영대 김상훈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지난 19일 오전(미국 시간) 세계 각국의 창업주·최고경영자(CEO) 300여명이 참석한 최고경영자(EMBA)과정에서 교재로 다뤄지면서 첫 공개됐다.

이날 강의에서 오펙 교수는 첫 KCON행사가 적자로 끝난 상황에서 투자액을 2배로 늘려 ‘KCON 2013’을 확대 개최할 것인지 의사결정의 기로에 놓인 이재현 회장의 고민을 토론 과제로 던졌다. 수업 참석자들은 이재현 회장 입장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KCON’에 장기 투자할 것인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례집은 첫 문장으로 “전 세계인이 매년 2~3편의 한국 영화를 보고, 매월 1~2번 한국 음식을 먹고, 매주 1~2편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매일 1~2곡씩 한국 음악을 듣게 하는 것”이라는 이재현 회장의 비전을 소개했다.

또 “문화산업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향후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이 회장의 신념을 전하고 “이것이 적자를 내면서 지금까지 CJ가 문화 콘텐츠 사업에 지속 투자해 온 이유”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회장이 드림웍스 투자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사업에 뛰어든 과정과 1998년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를 설립한 이후 6년 만에 한국 영화시장이 3배 성장하고 25%에 머물던 한국 영화 점유율이 60%로 상승한 결과도 소개했다.

꽃피는 봄… 비염·아토피 '알레르기의 역습'

정확한 위험요인 찾아내 초기 치료해야

"봄만 되면 재채기가 나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쉴 새 없이 콧물이 나와 짜증이 나요."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알레르기로 유발되는 질환으로 발생하며 환경성질환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알레르기는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황사와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증가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봄의 불청객으로 불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환경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876만 명에 달했다. 이중 가장 많은 환자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로 595만 여명, 천식 환자가 183만 명,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98만 여명이었다.

알레르기는 피부에 일어나면 아토피 피부염, 코에 침범하면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에 자리 잡으면 천식, 결막에 작용하면 알레르기 결막염 등 염증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다.

조영주(사진) 이대목동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봄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 즉 꽃가루 같은 알레르겐이 많아지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황사나 기온차 등으로 숨어있던 알레르기질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계절에 따라 심해지는 증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알레르기는 사람에 따라 치명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했다.

한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알레르겐은 완전히 회피하지 않는 한 계속 염증을 일으키면서 만성화되기 쉽다. 한 가지 알레르겐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원인물질이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조 교수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결막염 등이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환자도 있는데 이를 '알레르기 행진(Allergy March)'이라고 한다. 초기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알레르기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이러한 알레르기 행진의 고리를 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는 자신의 질환을 심각하게 만드는 악화요인을 찾아 차단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알레르기 질환은 한 번에 완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봄. 자신의 주변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강강술래, 주문한만큼 포장상품이 '덤'

홍대·상계 1+1, 시흥점은 2+1 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가족끼리 외식을 나서거나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채로운 봄맞이 이벤트를 벌인다.

홍대점과 상계점은 4월17일까지 주중에 소고기구이류 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 포장상품을, 돼지구이류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을 주문한 인분 수만큼 무료 증정하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주말에는 한돈양념·돼지양념 포장상품 1+1 덤증정 이벤트도 벌인다.

시흥점은 같은 기간 주중에 소고기구이류 메뉴를 2인분 시키면 한우불고기 1인분 포장상품을, 돼지구이류를 2인분 시키면 돼지양념구이 1인분 포장상품을 덤으로 주는 2+1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31일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육개장선물세트(500ml/7팩/14인분)는 2만9000원, 갈비탕선물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9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50ml/2팩)을 덤으로 준다.

곰탕·갈비탕·육개장 모두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어 조리도 매우 간편하다.

이달 말까지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를 40% 할

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하며,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칠칠한우떡갈비세트(360gX3박스)도 50% 할인된 3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3만5700원)와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4만2000원), 국내산 돼지고기 70%에 흑임자를 접목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9400원)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식음료업계 '그린 마케팅' 활발

물 사랑 실천·자원 순환 동참·일회용컵 줄이기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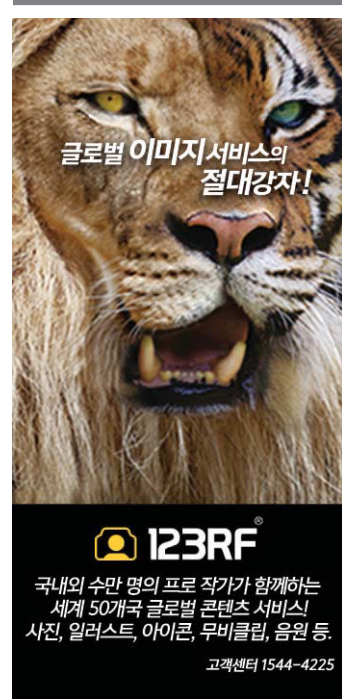
식음료 업계가 환경 보호 실천을 알리는 '그린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 확산과 기업 차원의 환경 보호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2009년부터 7년 째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UN이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물 사랑 실천 방법을 알리는 '우리가족 물 사랑 3·2·2'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가족 물 사랑 3·2·2' 수칙을 알리고, 소비자 프로모션을 통해 100여 명의 시민에게 물 절약 실천에 대한 홍보물과 석수를 무료 배포했다.

동아오츠카는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블루 라벨 캠페인'을 진행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의 라벨에 소비자가 쉽게 분리 할 수 있도록 절취선을 적용한 포카리스웨트 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다. 라벨 속의 행운번호를 추첨해 경품을 주는 고객사은 경품 이벤트도 진행했다.

탐앤탐스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에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회용 컵을 줄입시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객이 즉석에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보리순차 구매 시 일회용 종이컵 대신에 무료로 고급 에코컵에 담아 제공했다. 캠페인 시작 2주 만에 '일회용컵 줄이기'에 1만5000명이 참여했다.

하림은 올 한해 동물사랑과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할 '피오봉사단 가족 2기' 모집에 나섰다. '피오봉사단 가족'은 하림의 '동물복지' 윤리경영 정신에 공감하며 다양한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펼치는 소비자들의 가족 봉사단이다. 토종 생태계 보호활동, 수질정화 체험, 재활용품 DIY, 자연생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로얄살루트 21년, 뉴패키지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로얄 살루트 21년 뉴 패키지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07년 이후 8년 만에 리뉴얼된 새로운 디자인의 로얄 살루트 21년은 영국 군주의 왕관을 장식하는 보석의 컬러인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의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백화점 기준 25만원(700㎖)이다.

제일제면소 '황태' 담은 신메뉴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이 운영하는 '제일제면소'가 강원도 인제 특산물인 황태로 맛을 낸 국수와 강정 등 봄맞이 신메뉴를 출시했다.

신메뉴는 황태를 우린 구수한 국물에 소면을 담은 '황태국수'와 튀긴 황태포를 간장 양념에 버무린 '황태 강정'이다. 황태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한다

한돈, 새 캐릭터 '한도니' 공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3일 올해 한돈을 대표할 새 한도니 캐릭터를 한돈닷컴(www.han-don.com)을 통해 발표했다. 한도니 캐릭터는 한국산 돼지임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게 캐릭터에 우리 땅을 의미하는 갈색 옷을 입히고 머리는 태극무늬를 본떠 디자인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행복한 도니' 등 모두 4가지로 제작됐다.

뉴타운 사업 속도… 강북 재개발 볕든다

왕십리 센트라스 이어 북아현·수색증산 등도 분양 준비

#지난 20일 문을 연 '왕십리뉴타운3구역 센트라스' 견본주택 입구는 주말까지 3일 내내 방문객과 떴다방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서울 중구에서 왔다는 한 방문객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견본주택을 찾았다"고 말했다. 기대에 부응하듯 이동식 중개업자들은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 3000만~4000만원은 거뜬히 받아주겠다"며 방문객들을 유혹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실상 중단됐던 서울 강북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잇달아 재개되고 있다.

왕십리뉴타운의 마지막 사업장인 3구역 센트라스가 대박을 예고하며 분양에 들어간데 이어,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북아현뉴타운, 수색증산뉴타운, 장위뉴타운 등에서는 드디어 첫 공급이 시작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주택뿐 아니라 공공·문화·상업시설 등 기반시설까지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에 비해 개발이 더딘 강북권에서 뉴타운은 신흥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곤 한다.

예컨대 마포구 아현동 일대는 2000년대 초반까지 낡은 주택이 몰려있는 구시가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아현뉴타운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금은 여의도와 광화문을 잇는 주거타운으로 탄생했다. 시범 뉴타운 사업지였던 길음과 은평도 마찬가지다.

장재현리얼투데이리서치팀장은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대단위로 재개발한다는 점에서 서울 강북지역의 주거지도를 바꿀 호재로 꼽힌다"며 "분양시장 회복에 힘입어 그동안 일정을 잡지 못했던 사업장들이 잇달아 분양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3차 뉴타운 사업장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도 8년 만에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 대림산업이 1-3구역에 'e편한세상 신촌'을 대우건설이 1-2구역에 '아현역 푸르지오'를 다음달 일반분양하는 것.

북아현뉴타운은 서울시청과 마포·여의도 등 업무시설 밀집지역과 가까워 직주근접 주거지로 제격이란 평가다. 최근 신촌로를 사이에 두고 입주가 시작된 아현뉴타운 아파트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북아현뉴타운 신규 분양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북아현동 서광공인중개사 대표는 "연초부터 북아현뉴타운 조합원 분양권을 비롯해 일반분양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 장위뉴타운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공급된다. 장위뉴타운은 2005년 10월 지정된 3차 뉴타운으로 지난해 하반기 장위2구역에서 이주가 시작돼 오는 4월 코오롱글로벌이 '꿈의숲 코오롱하늘채'를 일반 분양한다. 현재까지 5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빠르면 연내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도 10월 첫 분양을 준비 중이다. 2005년 3차 뉴타운으로 지정돼 21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 중이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마친 곳은 수색 4·6·9구역과 증산 2·5구역이고, 롯데건설이 4구역에서 '롯데캐슬' 아파트를 선보인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왕십리뉴타운3구역 센트라스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공급돼 미분양을 기록한 1·2구역과는 달리, 3구역은 분양시장 회복에 힘입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24일부터 시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24일부터 시중은행 16곳에서 시작된다. 신규 주택대출자를 제외하고 1년이 지난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중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자 등이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내달 분양

롯데건설은 다음 달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A27-1블록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1076가구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3~29층, 10개동, 전용면적 ▲59㎡ 87가구 ▲74㎡ 178가구 ▲84㎡ 811가구로 구성된다. 앞서 공급된 4070가구와 향후 분양될 A27블록 물량까지 총 6300여 가구의 '롯데캐슬' 브랜드타운 형성이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경의선 야당역(가칭)이 도보 5분 거리로, 이를 통해 서울역까지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운정호수공원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고, 한빛초·중·고교와 와석초교, 운정초교 등이 가깝다.

모든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동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내부는 4-bay 판상형과 2면개방 탑상형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공원 같은 아파트를 목표로 조경비율을 40.2%까지 높였다.

파주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투시도.

롯데건설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 등의 주요 산업단지와 가까울 뿐 아니라, 야당역 신설로 서울까지의 출·퇴근 거리도 단축될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는 만큼, 서울 전세 수요자들의 유입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들쑥날쑥 오피스텔 수익률, 믿어도 되나?

표본에 따라 차이…"수치 맹신 말아야"

수익형부동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피스텔의 수익률 정보가 뚤쑥날쑥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치 자체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순위가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70%다. 제주도가 10.74%로 1위에 올랐고 강원도가 8.70%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5.29%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강북구(6.2%)·금천구(6.2%)·강서구(6.0%)·동대문구(6.0%) 등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은평구(5.2%)·양천구(4.9%)·용산구(4.7%)·송파구(4.6%)·성북구(4.2%) 등에서 평균을 밑돌았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오피스텔 매매가격 및 임대수익률 실태 조사'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6.02%로 시·도별로 충남이 7.80%로 선두를 점했고 충북이 7.60%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도와 강원도는 각각 표본이 500세대 미만이라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서울시 내 자치구별 수익률 순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특히 은평구는 국민은행에서 수익률 3위를 기록한 반면 부동산114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하위 6위에 랭크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수익률 차는 1.31%다.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옮기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상승분과 감가상각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이라며 "이런 제반 비용을 다 포함할 경우 제시한 수익률보다 1%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재현 국민은행 부동산가치평가부 차장은 "공실률·각종 세금 등의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단계"라며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항목은 비슷하게 추출될 것이라 보는데 매매가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평구의 경우 표본 추출 시 뉴타운 지역의 오피스텔이 표본에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라며 "오피스텔의 경우 아직 아파트 가격처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각 조사기관의 발표를 맹신하기보다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시장에 나가보라고 조언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수익률 차는 물론이거니와 지역별 순위가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언 대표는 "업체별 수익률 차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표본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지역별로 대표 단지를 뽑는 방법이나 물량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투자자는 이런 발표를 참고삼아 직접 매물과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의정부 반도유보라' 지역주민 홍보모델 선정

반도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월 분양을 앞두고 일반인 홍보모델을 선정했다.

반도건설은 22일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홍보관에서 일반인 홍보모델 위촉식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홍보모델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민락동 이기환씨, 신곡동 김정은씨, 호원동 강임희씨, 서울 도봉구 창동 김보람씨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아파트의 성공 분양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상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이번 홍보모델 선정을 위해 의정부 민락2지구의 메인 타깃 거주지역인 의정부와 서울 동북부를 중심으로 길거리 캐스팅에 나섰다. 섭외된 후보 모델 중 카메라 테스트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했다. /박선옥기자

인디밴드 혼성듀오 **신현희와 김루트**

"음악적 동지…연인 절대 아니에요~"

혼성듀오 신현희와 김루트는 스스로를 '기똥찬 오리엔탈 명랑 어쿠스틱 듀오'라고 소개했다. 신현희는 "'기똥찬'은 '기막히다'의 경상도 사투리고, '오리엔탈'은 내가 노래할 때 판소리를 했냐는 말을 자주 들어서 붙였다"며 "'명랑'은 우리 둘 다 성격이 명랑해서 넣었다. '어쿠스틱'은 우리가 하는 음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기엔 이들이 가진 매력은 훨씬 더 무궁무진했다.

작년 K-루키즈 본선 6개팀 오르며 두각
팀 결성 2년 친남매 같은 '찰떡호흡' 과시

◆ **운명적인 첫 만남**

신현희와 김루트는 각각 경북 대구와 칠곡 출신으로 이들이 홍대 인디신에서 활동하기까진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 2012년 대구 동성로에서 거리 공연을 하던 신현희를 본 김루트는 "예쁘진 않지만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목소리를 가진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이에 신현희는 "김루트 오빠도 첫 인상이 딱히 좋진 않았다"며 "키도 작고 세련되지도 않았다. 예전에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오빠도 그런 사람 중 한 명 일거라 생각했다"고 받아쳤다.

짧은 첫 만남 이후 김루트는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기 위해 2012년 8월에 먼저 서울로 올라왔다. 신현희는 10월에 상경했다.

"오빠가 서울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원래 패션 디자인 쪽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었어요. 갑자기 음악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 반대가 심하셨죠. 그래서 쪽지 한 장 안남기고 서울로 올라와버렸어요. 제가 서울에 온 걸 알고 오빠가 자기 악기를 다 팔아서 제가 살 집 보증금까지 마련해 줬어요." (신현희)

이 때 까지만 해도 이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루트가 신현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 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매'가 됐다.

"현희는 천재예요. 음악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고 기타 코드도 잘 모르는데 곡을 척척 써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멜로디를 기타로 치는데 그게 다 어려운 코드예요. 참 신기해요." (김루트)

◆ **친남매 못지않은 '케미'**

이들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처럼 보이기도 했고 친남매처럼 보이기도 했다. 혹은 오래된 부부 같아 보이기까지 했다. 인터뷰 내내 티격태격 거리면서도 서로에 대한 칭찬을 은근슬쩍 늘어놓았다.

타이틀곡 '오빠야'는 짝사랑을 시작한 여동생이 자신의 오빠에게 연애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현희와 김루트의 '남매 호흡'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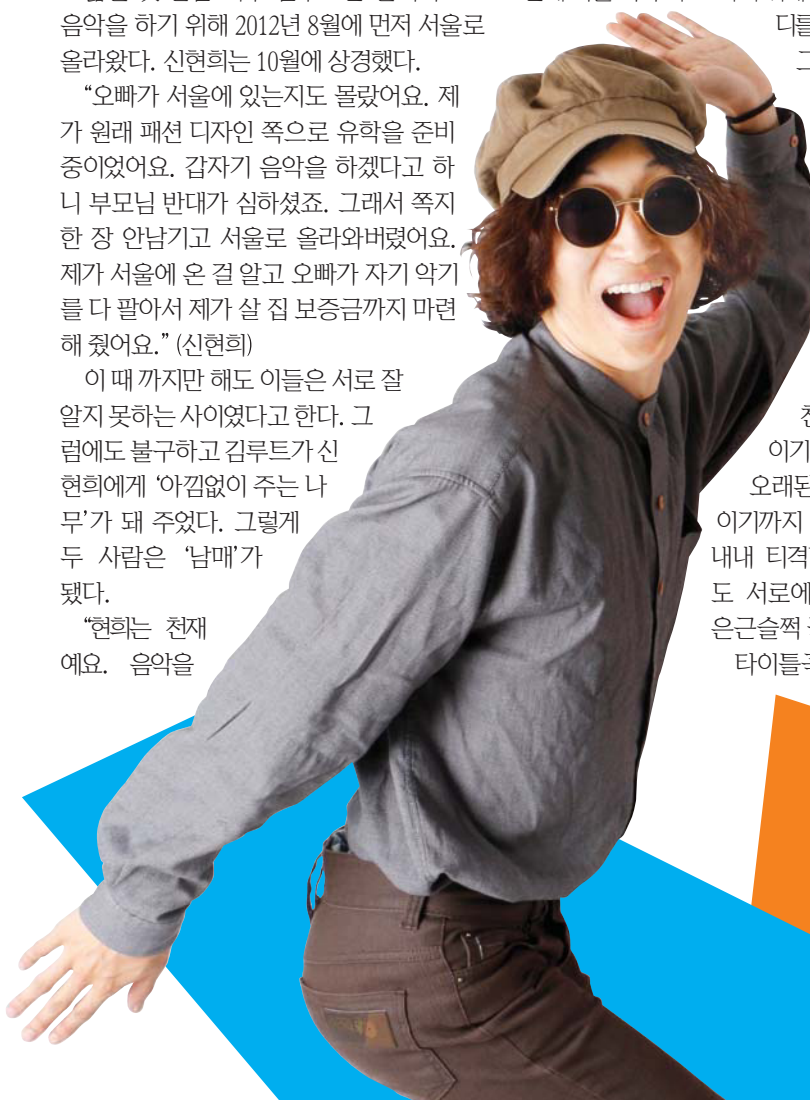
"저희가 어릴 때부터 친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알고지낸 지 3년 됐어요. 대구에서 코 찔찔 흘리면서 기타 치던 거 데려와서 팀을 결성했더니만…. 하지만 현희가 제 안경과 옷, 헤어스타일을 바꿔준 덕분에 지금의 존 레논 스타일이 완성됐죠." (김루트)

신현희와 김루트는 팀 결성 후 크고 작은 무대를 거치며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신인 육성 지원프로젝트 '2014 K-루키즈 파이널' 최종 후보 6개 팀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EP앨범 '신현희와 김루트'는 이번 대회의 부상으로 앨범 제작비를 지원받아 만들었다.

꿈만 같았던 홍대신에도 입성하고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앨범도 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이룬 꿈이기에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저희 노래를 듣고 엄마가 '이거 내 아들 음악이야!'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루트)

"저희의 목표는 항상 같아요. 돈을 벌고 인기를 얻어도, 가족의 응원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신현희)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star bag

중국 최대 음악 시상식 올라

걸그룹 **포미닛**이 오는 25일 중국 심천 화룬심천 만체육중심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음악 시상식인 QQ 뮤직어워드에서 한국 대표 아티스트로 참석한다. 제이슨 므라즈, 왕리홍, 채의림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나란히 무대에 설 예정이다. 소속사는 "포미닛의 미니 6집이 중국 현지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고 밝혔다

예능국 실세로 변신

배우 **박혁권**이 KBS2 새 금요드라마 '프로듀사'에 캐스팅됐다. '프로듀사'는 여의도에 자리 잡고 있는 KBS 예능국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가는 드라마다. 박혁권은 극중 김태호 CP 역을 맡는다. 예능국의 실세 역할로 안방에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시아의 떠오르는 샛별

배우 **이수혁**이 아시아의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2일 홍콩에서 열린 제 8회 아시안 필름 어워즈 스페셜 어워즈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다. 소속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곽부성은 이수혁에게 중화권에서 연기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첫 해외 콘서트도 성공

걸그룹 **에이핑크**가 22일 싱가포르 더 맥스 파빌리온에서 개최한 첫 해외콘서트 '핑크 파라다이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소속사 에이큐브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3000석 모두 매진됐다. 지난 1월 국내에서 개최한 첫 단독 콘서트 역시 2분 만에 7000석이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삶 부여잡고 싶은 중년의 처절함

■ 화장

거장 임권택 철학적 관조

나이 든다는 것을 서럽다고 생각해본 적은 아직 없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으로까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장'(감독 임권택)을 보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서럽고 서글프지만 그럼에도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말이다.

영화는 한 50대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오정석이라는 이름보다 오상무라는 회사 직책으로 불리는 이 남자(안성기)는 막 아내(김호정)를 떠나보낸 참이다.

아내의 죽음 앞에 허망함을 느끼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는다. 그저 먹먹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이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조차 제대로 눌 수 없는 남자가 아내의 장례식 준비에 앞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비뇨기과를 찾아가는 것이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남자는 투병생활을 하던 아내를 보살피던 지난 시간을 떠올린다.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내의 곁을 지키는 동안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젊은 여직원 추은주(김규리)의 생기 넘치는 모습은 아내 간병에 지쳐가고 있던 남자에게 삶의 활력소와도 같았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복잡한 마음을 남자는 아내의 장례식과 함께 정리해 나간다.

'죽어가는 아내를 곁에 두고 있는 한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야기'라는 시놉시스, 그리고 성기 노출 등과 같은 자극적인 요소로 의도치 않게 홍보되고 있지만 '화장'은 그렇게 자극적인 영화가 아니다. 오히려 철학적이며 때로는 관념적이기까지 하다.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직원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고뇌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으로 그려진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외면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생의 의지를 붙잡고 싶다는 그 마음을 영화는 그저 묵묵히 바라본다. 그 감정의 깊이가 보는 이의 마음을 처연하면서도 서글프게 만든다.

아마도 50대라는 나이를 경험하지 못한 이에게 '화장'은 다소 무겁게 다가올 것이다. 아름다움과 추함도, 삶과 죽음도 그 경계를 지운 채 받아들이게 되는 50대의 삶을 영화는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감정이 마냥 낯설게만 다가오지 않는다. 그 시기를 이미 지나온 70대 노감독의 관조적인 태도가 영화에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4월 9일 개봉.

아이언맨·캡틴·헐크 한국 온다

'어벤져스2' 내달 17일 내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의 조스 웨던 감독과 주연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크리스 에반스, 마크 러팔로가 다음달 16일 한국을 방문한다. 영화에 출연한 한국 배우 수현도 행사에 함께 한다.

수입배급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23일 "'어벤져스2'의 감독과 출연 배우들의 대한민국 방문과 공식 행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다음달 16일 내한해 다음날인 17일 공식 기자회견과 팬 이벤트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조스 웨던 감독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반스, 수현은 앞서 4월 1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 참석한 뒤 한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번 내한 행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내한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될 전망이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크리스 에반스는 지난 2013년 각각 '아이언맨3'와 '설국열차'로 내한한 뒤 2년 만의 공식 내한이다. 마크 러팔로는 이번이 첫 내한으로 팬들의 기대감이 높다.

'어벤져스2'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어벤져스'의 속편으로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사상 최강의 적 울트론과 이에 맞서는 어벤져스 군단의 대결을 그리는 영화다. 다음달 23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크리스 에반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따뜻한 봄 사랑에 빠진 연예계

이민호·수지, 류수영·박하선 열애에 장윤주 결혼까지

왼쪽부터 배우 이민호·미쓰에이 수지 – 배우 류수영·배우 박하선.

봄을 맞이한 연예계가 스타들의 열애 소식으로 한층 온기를 띠고 있다.

배우 이민호와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23일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23일 "이민호와 수지가 만난 지 1개월 정도 됐다. 현재 조심스럽게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도 이날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호와 수지는 앞서 이날 오전 한 인터넷매체의 보도를 통해 열애설에 휘말렸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호와 수지는 서울과 영국 런던에서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호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로 한류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영화 '강남 1970'으로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수지는 미쓰에이 멤버로 사랑 받았으며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국민 첫사랑'의 수식어를 달았다. 최근에는 영화 '도리화가' 촬영을 마쳤으며 미쓰에이 컴백도 앞두고 있다.

같은 날 배우 류수영, 박하선의 열애 소식도 전해졌다. 류수영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23일 "류수영과 박하선이 사귄지 5개월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MBC 드라마 '투윅스'에서 커플로 호흡을 맞췄다.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친분을 이어온 두 사람은 얼마 전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수영은 지난해 SBS 드라마 '끝없는 사랑'을 마친 뒤 최근 KBS2 드라마 '블러드'에 카메오로 출연했다. 박하선은 지난해 SBS 드라마 '유혹'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MBC '일밤–진짜 사나이'에 연달아 출연하기도 했다.

한편 한편 모델 장윤주는 5월의 신부가 된다. 장윤주 소속사 에스팀 관계자에 따르면 장윤주는 4세 연하의 사업가와 함께 오는 5월 29일 결혼식을 올린다.

장윤주의 예비 신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에 만났으며 올해 1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해 교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다.

/장병호기자

장윤주

매주 **토요일** 밤 **11**시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Real Follow me 5 Queen

더 새롭고, 더 깐깐해진 리얼퀸들이 돌아왔다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FOX FOX life FX

SBS 주말 예능, 맞불 작전 통했다

밤 시간대 '아빠를 부탁해' '웃찾사' 편성… 시청률↑

주말 밤 시간대에 드라마 대신 예능 프로그램을 들고 나온 SBS의 새로운 주말 편성이 시청률 상승의 성과를 냈다.

SBS는 24년 만에 밤 9시대 주말극을 폐지하고 대신 토요일에 '아빠를 부탁해'를, 일요일에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를 배치했다. 주말 밤 시간대에 예능을 전면에 내세운 SBS는 편성 후 첫 주말에서 토일 양일 나란히 전주 대비 시청률이 약 4% 포인트 상승했다.

부녀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는 6.9%(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웃찾사'는 5.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5일 종영한 SBS 주말드라마 '떳다 패밀리'의 시청률(2.3%)의 배가 넘는 기록이다.

특히 22일에는 오랜만에 코미디 프로그램의 경쟁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일요일 밤 8시45분으로 방송 시간을 변경한 '웃찾사'는 지난주 방송보다 시청률이 1.2% 상승했다. 동시간대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이하 '개콘')는 12.7%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지난주보다 1.2% 포인트 하락한 만큼 '웃찾사'의 선전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날 '웃찾사'는 새 코너 '모란봉 홈쇼핑'을 투입해 시청자 이목을 사로잡았다. '배우는 배우다' 코너에서는 배우 김응수가 출연하기도 했다. '개콘'도 '불량엄마' '나미와 붕붕' 등의 새 코너를 배치해 '웃찾사'의 반격에 대비했다.

예능 프로그램의 활약에 힘입어 SBS 주말드라마 '내 마음 반짝반짝'도 22일 방송에서는 평소보다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한편 비슷한 시간대 방영된 MBC 주말드라마 '여왕의 꽃'은 17%, KBS1 대하드라마 '징비록'은 10.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KBS2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의 시청률은 25.4%로 집계됐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아빠를 부탁해

웃음을 찾는 사람들

TV 하이라이트

신기술 장착 가족팀과 한판승부

◆ KBS2 '우리동네 예체능' 오후 11시10분

족구 신기술을 장착해 한층 강력해진 '우리동네 예체능' 족구팀은 '순이회'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예체능' 족구팀의 네 번째 대결에 도전장을 내민 순이회는 47명의 대가족으로 구성된 팀이다. 신순이 여사의 7남매가 주축을 이룬 가족 족구회인 이들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족구 대결을 펼쳐왔다.

순이회에 맞서 '예체능' 족구팀은 그동안 연습해온 신기술들을 공개하며 한층 강화된 공격력으로 '신 예체능 족구팀'의 탄생을 예고한다. 특히 정형돈과 양상국은 각각 비껴 차기와 꺾어 차기 기술로 순이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넘버원 엘리트 전학생'의 자리를 놓고 싸우던 강용석과 전현무가 학급회장 선거를 통해 2차전을 펼친다. 전현무는 본인의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까지 불사하며 네거티브 선거전에 돌입한다. 전 국회의원 강용석은 경험을 살려 뛰어난 언변과 화려한 공약으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전현무를 압박한다.

◆ KBS1 '시사기획 창' 오후 10시

후쿠시마 원전폭발 4년째를 맞아 일본 현지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와 방사능을 피해 이주한 일본인들을 밀착 취재했다. 방사능을 우려해 일본 서부 오카야마 현에 탈출해온 피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도쿄·이바라키·후쿠시마 원전 인근·홋카이도 삿포로 수산시장에서 확보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 등이 공개된다.

◆ SBS '룸메이트 시즌2' 오후 11시15분

배우 김수미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멤버들의 셰어하우스를 찾아온 김수미는 거침없는 욕 메들리로 멤버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자신의 팬을 자처한 박준형에게는 거침없는 팬 서비스로 화답하기도 했다. 또한 전라도식 음식과 반찬도 요리 실력도 뽐내왔다. 잭슨은 "한국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다" 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하늘 놀이터 25 영어동요 Pop! Pop! 45 어디 간다 GO! 55 EBSe 종이접기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달콤한 비밀 (95회)	15 불굴의 차여사 (53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70회)	05 곰디와 친구들(더빙) 20 스쿨랜드-틴틴 인터뷰 30 초등 영어 Bike Family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87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1 대 100	55 압구정 백야 (112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00 지식 english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00 공부의 왕도 30 다큐 오늘 4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블러드 (12회)	00 빛나거나 미치거나 (20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10회)	30 EBS 인문학 특강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생명최전선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룸메이트	20 영어로 하는 세계테마기행
24시	30 독립영화관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발칙한 사물 이야기, 다빈치 노트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0 EBSe 생활영어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38회)		30 두 남자의 캠핑쿡 (11회)	30 TV 동물농장 (409회)	
19시	55 JTBC 뉴스룸	10 문제적 남자 (4회)	00 현장토크쇼 TAXI (367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오 마이 갓 (25회)	00 오늘 뭐 먹지? (21회) 30 오늘 뭐 먹지? (42회)	00 <극한직업>가을 갈치잡이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21회)	40 삼시세끼 어촌편 (9회)	00 올리브쇼 2015 (9회)	00 시저 밀란의 도그 위스퍼러 S6 (1회)	
22시			00 오늘 뭐 먹지? (47회) 30 오늘 뭐 먹지? (39회)	00 소셜 컨트롤 (1회) 30 소셜 컨트롤 (2회)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37회)	00 호구의 사랑 (14회)	00 올리브쇼 2015 (9회)	00 포식자들의 전쟁	
24시	20 속사정쌀롱 스페셜 (21회)	20 현장토크쇼 TAXI (372회)	00 월간 홍신애 (1회) 10 월간 홍신애 (2회) 20 샘&레이먼의 쿠킹타임 (7회) 50 샘&레이먼의 쿠킹타임 (8회)	00 <극한직업>가을 갈치잡이	19:00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4차전 창원 LG vs 울산 모비스 MBC스포츠+

'슈퍼루키' 김효주 2억5천 품었다

23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LPGA 투어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김효주가 우승컵을 품에 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정상… 코리안골퍼 6개 대회 싹쓸이

'슈퍼루키' 김효주(20·롯데)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열린 LPGA 투어 6개 대회를 코리안 골퍼들이 싹쓸이하는 돌풍을 이어갔다.

김효주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 파이어 골프클럽(파72·658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그는 18언더파 270타로 대회를 마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으로 2015시즌 LPGA 투어 정회원이 된 김효주는 올해 세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첫 우승을 일궜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 달러(약 2억5000만원)다.

김효주의 우승으로 한국계 선수들은 시즌 개막전이었던 코츠 챔피언십 최나연(28·SK텔레콤)을 시작으로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 김세영(22·미래에셋), 호주여자오픈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혼다 타일랜드 양희영(26), HSBC 챔피언스 박인비(27·KB금융그룹) 등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효주는 10번 홀(파4) 보기로 루이스에게 1타 차 추격을 허용했으나 11번 홀(파5)부터 3개 홀 연속 버디를 낚아 달아났다. 특히 12번 홀(파4)에서 약 10m 가까운 긴 거리 버디 퍼트를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루이스 역시 12, 13, 16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해 김효주를 1타 차로 압박하며 마지막 18번 홀까지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펼쳤다.

18번 홀에서 김효주는 두 번째 샷을 홀 약 3m 거리에 붙인 반면 루이스의 두 번째 샷은 홀 6m 정도 거리에 떨어지면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김효주는 침착하게 버디를 성공시켰고, 루이스는 파 퍼트까지 놓치며 3타로 벌어졌다.

김효주 외에도 이일희(27·볼빅)와 이미향(22·볼빅)이 나란히 16언더파 272타로 공동 3위에 올랐고, 최나연·김세영·리디아 고 등은 15언더파 273타를 쳐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치며 한국계 선수 6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김효주는 경기 후 "아직 영어를 완벽하게 배우지 못해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게 돼 죄송하다"며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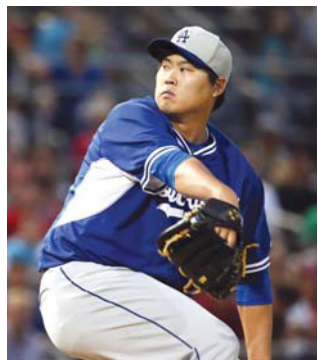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류현진 개막전 출전 불투명

캐치볼 후 또 어깨통증 LA서 정밀진단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이 다시 어깨 통증을 호소해 올 시즌 초반 선발 합류가 불투명해졌다.

MLB닷컴은 23일(한국시간) "류현진이 왼 어깨에 코티손 주사(cortisone injection)를 맞은 후 4일 만에 캐치볼을 했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지난 18일 시범경기 두 번째 실전 등판을 마친 뒤 다음날 어깨 통증을 느꼈고,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코티손 주사를 맞았다. 주사 치료 후 3일을 쉬고 4일째 공을 다시 잡기로 한 류현진은 예정대로 23일 캐치볼을 했다.

통증이 줄어들면 류현진은 캐치볼 수와 거리를 늘려나가며 어깨를 단련하는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류현진은 통증을 느꼈고, 훈련을 중단했다.

CBS스포츠는 즉시 "류현진이 캐치볼 후 어깨에 다시 통증을 느꼈다"며 "다저스는 류현진을 LA로 보내 상담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을 트레이너실 앞에서 봤는데 평소와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며 "아마도 류현진이 (어깨 쪽에)안 좋은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아쉽게도 류현진이 정규시즌 개막(4월 7일)에 맞춰 등판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열심히 훈련해 온 류현진에게 더 많은 걸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매팅리 감독은 정규시즌 개막 때 류현진을 부상자 명단(DL)에 올려 충분한 휴식을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시즌 초 휴식일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일정상, 다저스는 4월 중순까지 선발 투수 4명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다. /김민준기자

구자철(왼쪽)이 23일(한국시간) 독일 마인츠의 코파스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와의 2014-2015 독일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26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마인츠 듀오' 구자철·박주호 풀타임

'마인츠 듀오' 구자철·박주호가 나란히 풀타임 출전해 '강호' 볼프스부르크와의 무승부에 힘을 보탰다.

마인츠는 23일(한국시간) 독일 마인츠의 코파스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와의 2014-2015 독일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26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8분 니코 분거트의 헤딩 선제골이 터졌지만 후반 16분 루이스 구스타보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1-1로 비겼다.

이번 시즌 여섯 번째로 동반 출전한 마인츠의 구자철과 박주호는 각각 오른쪽 날개와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구자철은 지난해 12월 20일 바이에른 뮌헨전 이후 3개월여 만에 선발 출전이다. 박주호는 최근 3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다.

이날 무승부로 승점 1을 따낸 마인츠는 승점 30(골득실 -1)으로 FC쾰른(승점 30·골득실 -6)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11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뛰는 윤석영(25) 역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에버턴과의 홈경기에 나서 풀타임 활약했다. 하지만 팀은 1-2로 졌다.

윤석영은 후반 9분에 상대 선수에게 거친 반칙을 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6승4무20패가 된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최근 5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인 19위에 머물렀다. /김민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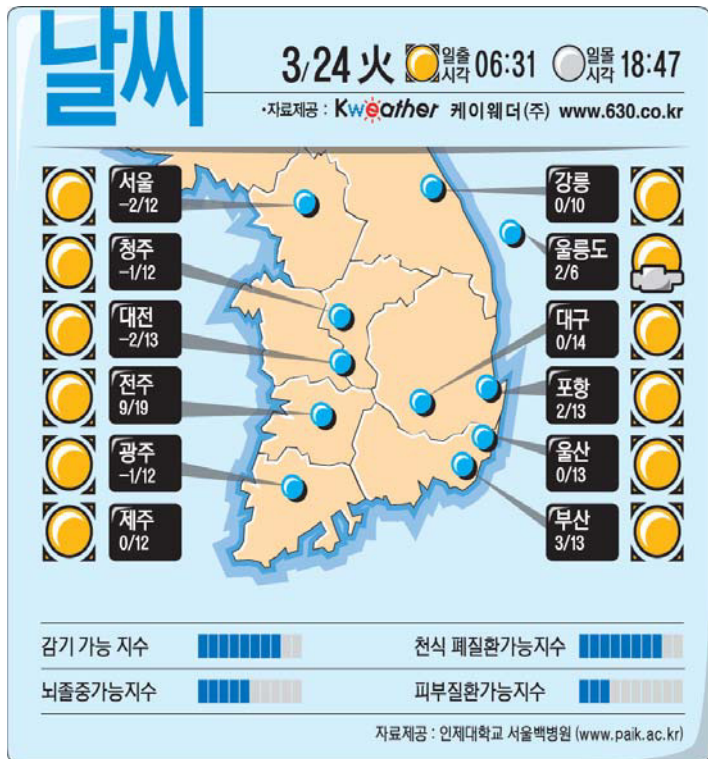
맷 에브리, PGA 파머 대회 2연패

맷 에브리(미국·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에브리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클럽 앤 로지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적어낸 에브리는 세계랭킹 3위 헨리크 스텐손(스웨덴·18언더파 270타)을 1타차로 누르고 지난해에 이어 우승트로피를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선수는 에브리를 포함, 타이어 우즈(5년 연속 우승)와 로렌 로버츠 3명 뿐이다.

에브리는 "이번 대회 내내 아이언샷이 정확했다"며 "4라운드 후반 들어서는 퍼트가 흔들렸고 긴장도 됐지만 이제는 우승하는 법을 안다"고 말했다.

재미동포 케빈 나(32)는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11언더파 277타를 쳐 공동 11위에 그쳤다. /김민준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7		1	5
				2				
			1		9	7	6	
	7	6					2	1
		3				6		
4	9						5	3
	8	9	5		1			
				6				
2	5		8		4			

3				4		6	2	
9			2					
		2		1	3			5
	3					1		7
2		6				9		4
1		8					6	
5			8	6		2		
					1			6
	2	3		7				1

스도쿠 정답

9	6	2	4	8	7	3	1	5
7	1	5	6	2	3	8	9	4
8	3	4	1	5	9	7	6	2
5	7	6	3	9	8	4	2	1
1	2	3	7	4	5	6	8	9
4	9	8	2	1	6	5	3	7
6	8	9	5	7	1	2	4	3
3	4	7	9	6	2	1	5	8
2	5	1	8	3	4	9	7	6

3	5	1	7	4	8	6	2	9
9	4	7	2	5	6	3	1	8
8	6	2	9	1	3	7	4	5
4	3	5	6	9	2	1	8	7
2	7	6	1	8	5	9	3	4
1	9	8	4	3	7	5	6	2
5	1	4	8	6	9	2	7	3
7	8	9	3	2	1	4	5	6
6	2	3	5	7	4	8	9	1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온전한 책임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김동수씨의 자살 시도는 아프다. 아프다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안타깝다거나 말도 안 된다거나 같은 말은 비루하다. 그는 영웅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유일무이하게 빛이고 소금이었던 사람이었다. 어린 생명을 구하고자 사투를 벌였던 그였다. 그런 그가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에 무너졌다.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세월호 참사에 울대를 치켜세웠던 제3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회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다. 거대한 것이 아닌 그 근간을 이루는 주춧돌이어야 한다.

다큐테인먼트라는 장르가 있다. 영화나 TV방송 등에서 쓰여지는 컨텐츠의 형태다. 오래 전부터 분류체계에 포함돼 있던 것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만들어진 구성이다. 실제 사건을 기획자나 연출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해석해서 만든, 완성된 컨텐츠는 마치 그 전체가 사실을 나열하고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지도록 편집한 영상물이다. 문학의 소설과 비슷하지만 사건을 객관화시키는 소설에 비하면 다큐테인먼트는 제작자의 의도가 많이 가미된다. 공통점은 제3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논란이 있다. 어른 사회가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심과 사랑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행보가 대의를 위한 고민과 결단의 과정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저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행정인들의 안이한 업무 습관이 결탁해 만든 조롱거리로 전락됐다. 형평성이라는 혹은 정의라는 것에 대해 편리한 잣대를 댔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삼키기조차 힘든 고추를 쌓아 놓고 많이 먹는 게임을 한다. 살갗이 찢어질 듯한 찜질 공간에서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기절할 때까지 견디기도 한다. 이런 건 인내가 아니라 자학이고, 무모하고 유치한 미생의 행태에 불과하다. 인내란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도 마찬가지다.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기 전에 갖춰야 할 태도가 핵심이다. 그래야 중요한 걸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이 가능하다. 이른 바 온전한 책임이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공무원이냐 학원강사냐 갈림길에…
관직보다 사업이나 강사업종에 운 닿아

문창귀인 88년 1월 10일 저녁 5시

Q 저는28살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라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의 전공이 교육학인데 졸업 후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도전 하려는데 저의 운에 합격이 될 수 있는지요. 공무원이 아니면 학원에서 강사로 지내야 하는지 갈림길에서 고민입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철학관에 가서 상담을 해보았는데 사주에 흉살이 많아 제대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기운이 빠집니다. 과연 제가 그렇게 안 좋은지요? 제가 특별히 남에게 해코지 하거나 못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복을 받지는 못할망정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A '뿌리 없는 나무가 물에 떠 있는 형상'으로 주거를 자주 옮기거나 부부의 인연이 자주 바뀌는 우여곡절이 있는 사주입니다. 사회적인 장점으로는 한편으로 범선(帆船)과 같아 활동무대가 넓은 편으로 태어난 날에 상징인 나를 상생(相生)해주는 인수(印綬)가 주요 역할을 하므로 지적수준이 높고 지혜와 총명을 암시하는 길함이 있는데 이것은 중년이 되도록 학구열이 식지 않고 교육계에서 꾸준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이나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역학 용어로 정관(正官:직업)이 승발 하여야 하는데 아쉽게도 현재 묘지(墓地)에 있는 격이니 2018년이 되어야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편재(偏財:재물)가 승발 하는 운에 있으므로 관직보다는 사업이나 학원 강사 업종이 운에 닿아 있다고 보며 돈 벌며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이 많아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으며 태극귀인(太極貴人)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시사 합니다. 태극은 시종(始終)을 의미하며 종래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주에 흉살이 많다고 한 것은 생일에 편인(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이라 하여 효신살(梟神殺)이 있음으로 표현됐다고 보며 이는 동방불인지조(東方不仁之鳥)로 어미를 잡아먹는 새로 비유됩니다. 모외유모(母外有母)하거나 모정유수(母情有愁)하여 모친의 덕이 부족하고 성장해서는 모친에 대해 근심을 하는 일이 잦다고도하며 또는 상부조직에서 윗사람과 트러블이 많다고도 보는데 현실에서 그러하다면 알면서 주의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겨울나무'로서 건강상으로는 추위를 많이 타고 수족냉증이나 간담의 질환을 유의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24일 (음 2월 5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세요. **60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72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84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도 마세요.

49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길합니다. **61년생** 현재의 일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3년생**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됩니다. **85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50년생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세요. **62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면 앞으로 평탄할 것 입니다. **74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노력이 있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51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 입니다. **63년생** 꾸준한 노력의 대가로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87년생**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52년생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64년생** 남 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88년생**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것입니다.

53년생 대인관계의 불화로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5년생** 상대와의 의견차이를 인정하세요. **77년생** 동료와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89년생** 중요한 약속을 어기지 마세요.

54년생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세요. **66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78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90년생**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55년생 선물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67년생**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지나친 음주를 삼가세요.

56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흉반길입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됩니다. **80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92년생** 남녀간의 문제를 조심하세요.

57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69년생** 자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81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길합니다. **93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58년생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70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82년생** 모든 것이 길합니다. **94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5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71년생**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야 합니다. **95년생** 친구들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변호사 이력광고 전관예우 부추겨

법조계 "규제 없어 제도보완 시급"
변협 "사실에 입각… 문제 없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등 전관 출신 이력을 내세우는 변호사 개업 광고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출발점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신임 대법관 후보에게는 퇴임후 개업포기서약서를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전관예우 관행을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개업광고 문안부터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향상뿐아니라 이른바 연수원 출신이나 로스쿨 졸업 변호사 등 비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심각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검사 등 전관 출신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열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는 거의 예외없이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개업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는 변호사의 출신 학교와 근무 이력, 사법연수원 기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법원이나 검찰 재직 중 직위나 업무 내용까지 싣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기가 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했다는 것까지 공개한 광고도 있다.

사실상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이 생기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 같은 개업 광고 게재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원 출신 한 중견 변호사는 "특히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으로 판·검사 출신들을 영입하고 이 사실을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사실상 관련 소송 등을 싹쓸이 하는데, 연수원 출신이나 로스쿨 변호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이 같은 광고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변호인과 법무법인을 지목해 비방하거나 변호사 이력 등 사실에 위배되는 광고행위여야만 변협의 광고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과 변호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사실에 입각한다면 전관출신 이력을 광고로 게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수원대 교수들 "사학비리 총장 엄정 수사해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20여명이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검 앞에서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사 가니 꽃샘추위 기습

전국 건조특보

월요일인 23일 황사는 물러갔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왔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0.0도로 어제보다 2.2도, 평년보다는 3.1도 낮다.

인천 1.5도, 춘천 영하 4.3도, 대전 영하 0.4도, 광주 0.6도, 부산 4.7도 등 전국의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1~5도가량 낮았다.

오전 9시 현재 기온은 서울 3.2도로 어제 같은 시간대 기온 8.4도보다 5.2도 낮다. 이밖에 인천 3.7도, 춘천 0.6도, 대전 4.7도, 광주 5.9도, 부산 8.0도를 가리키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10도, 대전 11도, 광주 11도, 부산 14도 등 평년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에 있는 상층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추위가 찾아왔다"며 "모레 낮부터 점차 풀려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복사냉각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내일 예상되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 등 전국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추위를 몰고 온 북서풍에 주말 동안 말썽을 부렸던 황사는 동쪽으로 가고 대기는 깨끗한 상태를 되찾았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으로 예보됐다.

문제는 건조한 대기다. 현재 성남·광주 등 경기 6개 시에는 건조 경보가, 서울·경북, 강원, 대구, 부산 등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유선준기자 rsunjun@

강화군청·강화소방서 관내 캠핑장 텐트 점검 23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의 한 캠핑장에서 강화군청 공무원들과 강화소방서 대원들이 텐트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변호사 개업포기 서약서 받겠다"

변협, 박상옥 후보 청문회서 첫 시도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23일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청문회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이 이 서약서에 날인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후보자들의 서약서 날인 여부가 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신규로 임용될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매번 협조문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첫 대상자는 박상옥 후보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렇게 하면 대법관을 마친 후에도 변호사 개업이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폐단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임한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제재하는 방안을 8년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내던 시절부터 구상해왔으며, 이제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 회장이 된 만큼 본격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공익 활동을 위해서라면 이사장이나 고문 역할만 해도 되는 것이고 직접 사건을 수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차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유선준기자

건국대, 내년부터 학부제 없앤다

전공별로 모집… '폐과 추진' 중앙대와 반대 행보

건국대학교가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기존의 학부제를 폐지하고 전공별로 학생을 뽑는 학과제로 전환한다.

23일 건국대는 '단과대학-학부-학과'로 혼용되던 학문 단위를 모두 학과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사 구조조정안이 최근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건축대와 정보통신대, 이과대학, 생명특성화대, 상경대, 정치대, 경영대, 공과대 등 8개 단과대학이 학과제로 바뀐다.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전공 탐색 기간 없이 1학년부터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소속돼 학과 교수진으로부터 학습·진로 지도를 받게되는 것이다.

또 건축대(3개 학과→1개)와 정보통신대(6개→3개), 예술디자인대(8개→6개), 상경대(4개→3개), 경영대(3개→2개) 등 10개 학과가 통·폐합 되면서 종전의 73개 학과가 63개 학과로 축소된다.

건국대는 또 복수전공과 부전공, 연계(합)전공 제도를 확대하고 교양 교과목 개설을 늘리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안은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취업을 포함한 학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말 학과제를 없애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을 내놓은 중앙대학교와는 정반대의 행보다.

/조현정기자 jhj@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